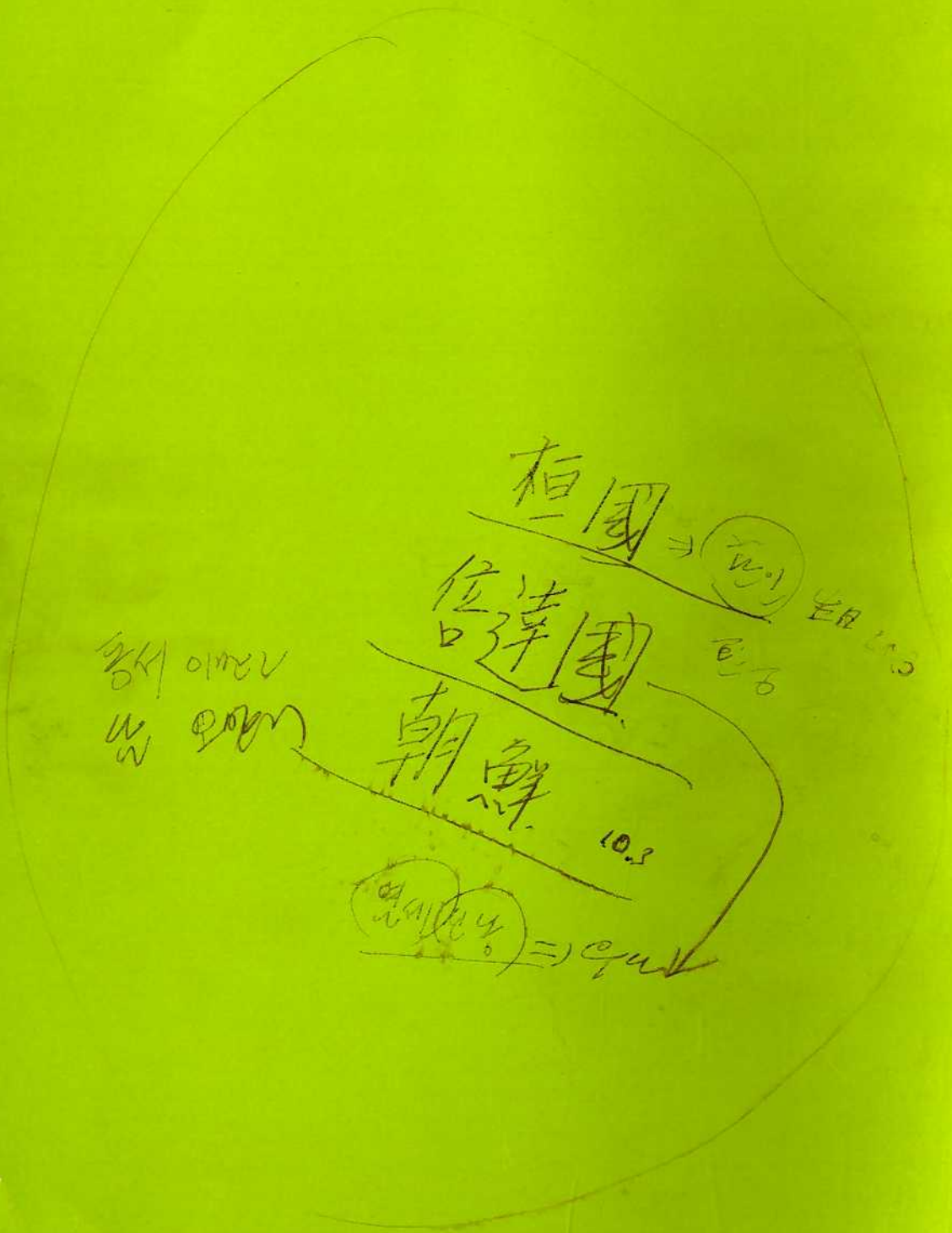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 763-9633/ 4(FAX)



정신대자료집 Ⅲ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 763-9633/ 4(FAX)

차 례

1. 취지문	3
3. 前강제중군위안부 증언.....	4
1) 노청자 할머니	
2) 김복자 할머니	
4. 한국측 발제	11
1) 중군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의 과제 ——— 윤정옥	
2) 천황제, 군국주의, 여성 ————— 정진성	
3)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의 전개과정 ————— 윤미향	
5. 일본측 보고	31
1) 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여성 ————— 스즈키 유우코	
2) 일본에서의 활동 ————— 다카하시 기쿠에	
3) 일본 국회에서의 활동 ————— 시미즈 스미코	
4) 재판투쟁에 관한 보고 ————— 후쿠시마 미즈호	
6. 재일교포측 보고	46
1) 일본 '우리여성 네트워크'의 입장및 제안 ——— 박윤남	
2) 재일 한국민주여성회 활동보고————— 박미좌자	
3) 조선인 중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보고 ————— 고순자	
7. 필리핀 보고	52
1) 아시아 연대회의에 부치는 서신	
2) 필리핀 "위안부"문제에 관한 첫 보고서 ———넬리아 산초	
3) "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필리핀 보고서 ————— 필리핀 정신대문제 대책회의	
4) 성명서 "일본 제국주의 군 위안소는 아시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다."	

8. 대만 보고 62
 대만 "위안부"에 관한 첫 보고서 ————— 메이링 첸

9. 태국 보고 71
 타이-버마 철로의 노역 근로대와 위안부 ——— 솜키드 마이샤

10. 아시아 연대회의 결의문 74

11. 사진으로 보는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76

12. 참가자 명단 78

일 정 표

일 시	프로그램 내용	일 시	프로그램 내용
8 / 9 오후 7:00	기자회견	10:30 11:00	한국 前위안부와의 만남 첫째날 정리
8 / 10 오전 9:0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8 / 11 오전 8:00	아침식사
11:00	희생자 증언(김복동, 노청자)	9:00	필리핀 발표(넬리아 산초) 대만 발표(메이링 첸) 태국 발표(솜키드 마이샤)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오후 2:00	한국측 발제(윤정옥, 정진성, 윤미향)	오후 1:00	각국 대표 회의
6:00	저녁식사	2:00	아시아 연대회의 결의문 채택을 위한 토론
7:30	일본측 발제(스즈끼 유우코, 다카하시 기쿠에, 시미즈 스미코, 후쿠시마 미즈호)	4:30	결의문 채택
9:30	재일교포 발표(박윤남, 박미라자, 고순자)	5:00	폐회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취지문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규명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려는 것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며, 잘못을 저지른 책임주체가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또다시 저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군국주의 세력이 '대동아공영권'의 기치를 내걸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수탈을 자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 자국의 정치, 경제적 실리와 관련하여 이익이 되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만적인 원조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국을 자국의 정치, 경제적 종속국으로 삼으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피해국들은 이러한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일본이 자행한 수많은 전쟁범죄 중에서도 아시아의 약소국 여성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하여 일본군인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그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회피해 온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과 일본의 공식적인 배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일본의 책임이 여러 자료를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자 부랴부랴 외교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죄한다' '기금을 마련하겠다' 는 등의 지극히 형식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당히 외교적으로 처리하려는 일본이 PKO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행위는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 일본이 추구하던 세계에 대한 재패 야욕을 다시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인 종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인 규명과 피해국에 대한 공식적인 배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시아 지역의 피해국과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이 회의를 상설 기구화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요구, 유엔 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로 참가하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대회의는 종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연대회의에 참가해주신 필리핀, 홍콩, 태국, 대만, 일본의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2년 8월 1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노청자 할머니의 증언

나는 1922년 2월 16일 충청남도 유성,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형제와 같이 생활하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1938년 3월 내가 16세이던 봄,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군대에 끌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설마 우리 마을에까지 군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지 5일 후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쯤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나에게 가져온 점심을 먹인후 자신의 치마를 벗어 그것을 나의 머리에 씌우고 “5병대가 왔어. 빨리 아주머니 댁으로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불안했으나 처녀라는 것을 모르도록 어머니의 치마를 머리부터 쓰고 도보로 2시간 거리의 산속의 아주머니 댁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 갔습니다. 약 1시간, 아주머니 댁을 향해 거의 반 정도 걸어 갔을 때쯤 나는 일본군이 7명(헌병 1명, 병사 6명)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군인들이 나의 손을 잡아 끌고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군인 중 한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대로 트럭에 실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내리막길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 한대에는 18세 전후의 여자가 나를 포함해서 38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감시관인 30대의 일본인 여자가 2명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손을 마주잡고 ‘우리들은 이미 다 죽었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트럭은 그 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창고같은 곳으로 끌려가 주먹밥과 물을 받은 후 트럭은 야간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2일간 기차를 타고 타이까친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실려 3-4시간 이동한 뒤 오오테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오테산 부대는 성벽안에 있었습니다. 38명의 여자들은 모두 같이 끌려 왔습니다. 위안소는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이었었는데, 작은 방에 판자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2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방이었고, 방 앞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판자 마루에 얇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은 작은 방이 몇개나 있고, 38명의 여자가 들어가고도 방 5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27번이었습니다.

마굿간 같은 곳에 들어 보내지고 군인이 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군화에 얼굴이 채어 코피가 났습니다. ‘조선인인 주제에 이년아... 때려 눕혀 주지’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굴욕의 매일이었습니다. 오전은 일반병사가 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목욕을 한 뒤 오후에는 상관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이때의 일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일은 한달에 한번 뿐이었습니다. 생리중이거나 몸이 많이 불편할 때는 ‘저는 생리중이에요’라고 해 일부러 속옷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생리중에도 상대를 시키는 군인을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 때보다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1주일에 한번 군의가 성병검사를 했습니다. 성병에 걸린 여자는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콘돔은 군인에게도 군대위안부에게도 지급되었고,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위안부 생활에서의 조그만 즐거움은 위문주머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문주머니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배부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일본식 속치마와 통조림, 비누, 크림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안소에서 돈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인중에는 건빵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던져 보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한끼에 10분 정도로 밥과 국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정해진 25-26세 정도의 군인이 날라 왔습니다. 식욕이 없어 못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잠시후에는 기모노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모노를 입으라는 명령이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기모노를 입고 대일본 국방부인회라고 쓰인 어깨띠를 했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는 전승을 축하하는 때로서 기모노에 어깨띠를 한 모습으로 성벽 바깥으로 나서서 있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불잡힌 팔로군 병사를 살해하는 현장에 입회할 때였다. ‘용기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보게 하는 것’이라며 군대 위안부 여자들에게 기모노를 입도록 명령해 살해 현장에 입회시켰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입회해야만 했던 날 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1시간 마다 교대로 군인이 위안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처음에는 5명, 얼마 지나고 나니 3명이었습니다. 성벽안에 있던 의복 판매상 집을 방문할 때도 군인이 따라와 혼자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인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은 한국인으로 천진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나에게 이삿날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상인이 장사하는 커다란 상자에 들어가, 위에는 담요를 덮고, 그 위에 옷을 넣고 숨어 그 상인의 도움으로 위안소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안소에 끌려온 지 2년 후인 1940년 3월이었습니다. 나는 탈출을 도와준 상인의 사실상의 양녀가 되어 양부모와 같이 천진에서 지냈으나 양부모가 귀국하게 되었기 때문에 1947년 내가 25세이던 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연행된 지 5개월 후 군무원으로 남양군도에 끌려가 거기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신대로 끌려 갔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 심부름 등을 하며 혼자서 생활해 갔으나 언제나 고달팠습니다.

몇번이나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온 것은 언젠가 일본의 책임을 밝혀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내고 남양군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비석을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복자(가명) 할머니의 증언

우리 집은 딸만 여섯이었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은 괜찮았습니다. 김경달이라고 하면 양산 남부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양산에 우리 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 되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빚장자들은 병중에 계신 아버지를 돈 안값는다고 경찰서에 잡아 넣는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가 겁이 나서 아버지 몰래 돈을 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두 뺏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은 있었습니다. 농사짓고, 딸들 시집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자가 없었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시집 안보내면 골려간다 해서 시집가고 나는 내째었는데 16살이니 안잡혀 가겠지 싶었습니다. 어린 처녀라 생각되어 들에 소먹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고, 1941년이었습니다. 통반장이라 하면 요새 도지사 백보다 더 컸습니다. 안들으면 그 때는 못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통반장이 일본사람과 같이 와서 나를 데신파이에 보내야 하니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본인은 계급장 없는 누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일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게 아니고 엄마보고 어떤 서류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쓰였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글을 모르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반장은 어머니께 내가 공장에 가서 3년만 일하면 돌아올 수 있고, 돈을 더 벌기 원하면 더 일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골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향을 떠나 양산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는 한 20명 정도의 내또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여자들도 다 공장에 가기 위해 왔다고 했고, 나처럼 도장찍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큰 창고같은 곳에 합판을 기다랗게 자리를 깔아놓고는 그 곳에 우리를 있으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시모노세키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대만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는 두서너달 정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무엇인가 명령을 기다리는 듯 싶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는데 일본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그래도 밖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대만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간다고 했으니 나는 단지 아직 우리가 갈 공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머무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3-4개월을 보낸 뒤 관도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생전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어보지

않았는데 옷을 벗고 그것도 다리를 군의관 앞에서 벌리고 다이 위에 누우라 하니 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같으면 16세 정도 되면 알 것은 다 알겠지만 당시는 16세면 아무 것도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남자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검사 안할려고 발버둥을 치니 안하면 안된다면서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다시피 하여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를 한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 가우뚱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위안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위안소는 15층 높은 빌딩이었는데 빈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군인들이 묵고 2층부터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층에 올라가면 사람이 사는 것처럼 깨끗이 치워져 있어서 사람이 사는가 싶기도 생각되었습니다. 관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갔다 하면 관동군에 의해 어떻게 끌려 가는지도 모르게 잡혀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 하면 군인들이 층을 메고 호위를 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목욕탕은 군인들이 위안소 내에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날 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안부 일을 강요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군인이 바로 그때 그 군의관이었습니다. 나는 반항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뒤꼍으로 도망을 쳐 덩불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덩불속에서 나는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없어졌으니 도망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나는 눈을 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군의관이 나의 양 볼때기를 엄청난 힘으로 때렸습니다. 한참을 맞고 나니 얼굴전체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안들을 수 없었습니다. 반항해 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 시키는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떨리고 그런 일은 처음 당했는지라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아랫 부분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통통 붓기도 했습니다. 어느날은 다른 처녀 2명과 함께 죽으려고 배갈을 큰 것으로 한 병 사서 위안소 2층 배란다에 가서 그것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기절해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야단이었나 봅니다. 밤이 되어도 위안부 3명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널고 있는데 밑에 배란다에 여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눈을 뜨니 병원에서 닝겔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위안소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진저리 나고 서글롭습니다.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곳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한군데 모아놓지 않고 군데 군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위안소는 군대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병들은 아침 8시가 되면 나와서 저녁 5시가 되면 들어갑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장교들이 나옵니다. 평일은 보통 15명 정도 상대해야 되었고 토요일 부터 일요일까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50명 정도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오면서 작은 표조각과 콘뭉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에는 표 모아 둔 것을 관리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관리자는 일본인이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물랐습니다. 단지 밥먹여 주고 어떨 때 내가 옷이 필요하다 하면 옷을 사주고 화장품이 필요하다 하면 화장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돈은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 몫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쉬는 시간이면 우리들은 모여 앉아서 울기만 했고, 일본이 이겨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본이 승전하기를 빌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그들이 해 주고 우리는 밥먹는데 가서 먹었고, 성병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는 성병은 한번도 걸려본 적은 없지만 상처가 많이 나서 많이 아플 때는 쉬었다가 검사한 뒤 좋아졌다고 하면 또 군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관도에서 그렇게 한 2년동안 있다가 홍콩으로 갔습니다. 한쪽은 홍콩이고, 한쪽은 바다였는데 쿠우슈우라고 했습니다. 그 곳에 얼마동안 있다가 싱가포르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위안소는 기다랗게 지어진 집에 칸막이만 쳐진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그 다음 또 자바로 이동해 갔습니다. 두달 정도 후에 또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옮겼고, 두달 정도 후에 또 어딘지 옮겨가고 그랬습니다. 침략해 들어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산중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산중까지 가야 했습니다. 10여 명 정도씩 출장을 갔는데 1주일 동안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군인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다녔는데 여자들은 맨 밑에 칸에 탔습니다. 위안부 시절 나의 이름은 가네무라 후꾸요라고도 하고 요시꼬라고도 했습니다. 위안소가 바뀔 때 그 위안소에 이미 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 똑 같으면 내가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나는 가네무라 후꾸요를 제일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 곳에서 위안소는 구락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이름도 다 달랐는데 내가 있던 곳은 고아구락부라고 불리었습니다. 홍콩에서부터 중국여자 한명과 일본여자 몇명이 같이 다녔는데 그 여자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여자는 상대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을 통해 일본이 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인들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어떻게 돌아가야 할 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인솔자가 우리를 제 16군 병원에 넣었습니다. 그 때 병원에 들어간 여자들이 거의 50명 정도였는데 다른 구락에 있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간호하는 강습을 시키고, 병원청소도 하고, 주사도 놓아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호박을 갖다 놓고 그것이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고 주사를 놓아보라고 했습니다. 환자는 많은데 손이 모자라니까 그런 일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사를 놓을 줄 알고, 약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이종사촌 형부가 내 사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만에서 관도로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과 잘있다는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마침 이종사촌 형부가 남양쪽에 보급대로 징용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도 어머니가 그 곳에 가면 복자를 찾아서 꼭 함께 데려 오라면서 사진을 줬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꼭 찾아오라고 해서 한국여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나

를 찾았었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수용소에 먼저 들어가 있는 후였습니다.

형부는 빨리 수용소에 가자고 했습니다. 수용소에 가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부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같이 간다고 나를 따라 나선 20 여 명과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 곳에는 여자가 200명도 넘게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은 그 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수용소는 가운데 철망을 쳐놓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식사는 찬밥을 끊어서 밀가루를 섞어서 췌었습니다. 미군들은 간섭안했습니다. 자치적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자들 관리는 한국 남자들 몇몇이 책임을 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면회를 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형부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주변에는 그 곳 주민들이 먹는 것도 팔곤 했습니다. 옷가지들 가지고 먹을 것으로 바꿔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주소와 이름을 다 적어갔습니다.

일본이름은 쓰지도 못하게 했고, 아침이면 애국가를 부르게 했고, 태극기 뺨지를 달아줬습니다. 한번씩 미군들이 검사하러 왔는데 물건이 뭐 있는가 싶어 와서는 가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수용소를 나갈 때 금조가리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나가지 못한다고 하여 돈이 될만한 물건은 아예 남은 사람들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수용소에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는 거의 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온갖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한참을 와서 부산항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1주일 동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속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호열자라 해서 전염되면 안된다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고기잡이 배 계통에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 쪽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서 다른 배가 오는 곳에 떨어뜨려 그것이 집에 연락이 되어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가 배를 타고 면회를 왔습니다. 김치, 고추장 같은 것을 배 안에 넣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1주일이 넘게서야 죽은 사람이 호열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겨우 부산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부산부두에 내리자마자 창고에 들어가게 하더니 사용하던 돈을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한국인과 미국인이었는데 우리들은 있는 돈을 모두 내놓고 기차표 한장과 돈 천원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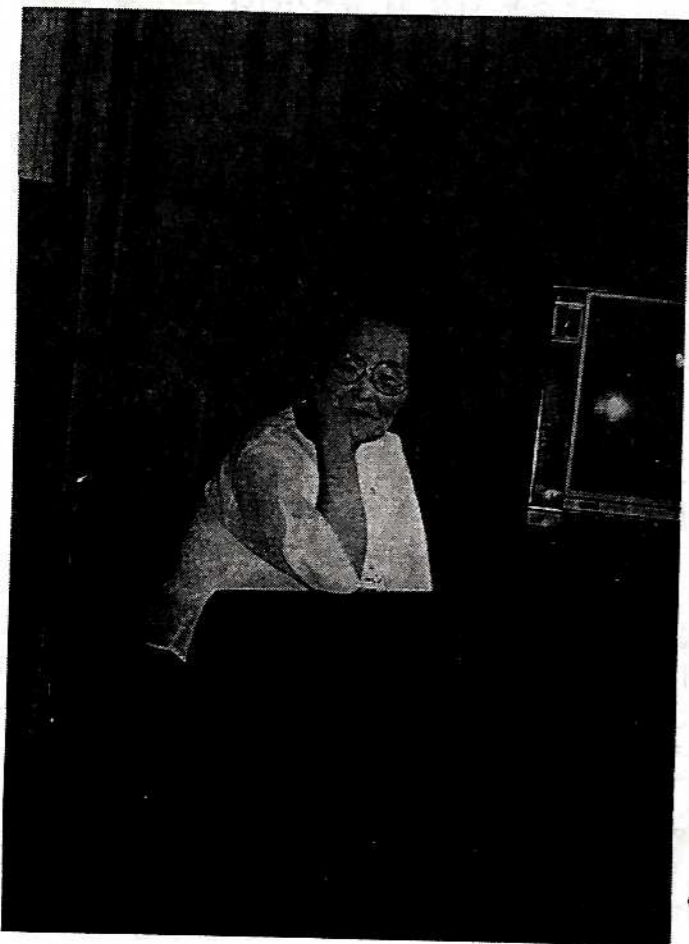
고향집에 돌아오니 23세였습니다. 언니네와 동생네는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고 없었고, 어머니 혼자 양산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떠난 후에 간 사람들도 많았다는데 다 속이니까 누가 위안부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갔다고만 하고 혹은 병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제 16병원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 의사도 제대로 없었으니 어린애가 아프면 주사도 놓아주고, 약에 대해서도 알고 하니 사람들이 정말 병원에만 있었나 보다고 믿어 줬습니다.

실제로 내가 위안부로 간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엄마하고 큰 언니 뿐이었습니다.

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간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식들 낳아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어머니도 처음에는 몰라서 나를 계속 시집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안부로 있다가 같이 나온 여자중에는 통영에 사는 여자도 있었고, 거제에 사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도 모두 유곽으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몸서리도 만나냐고 물었더니 배운게 이것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술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후 결혼에 실패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못낳았으니 자식하나 없이 지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나서 계속 다대포에서 술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험하게 되어 그 보상금으로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대로 조용히 나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보상도 일본정부에게서 꼭 받고 싶습니다.



〈증언 후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노청자 할머니〉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고]

종군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의 과제

윤정옥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47년이 되는 오늘까지 종군위안부들이 어디로, 얼마나 끌려 갔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섬들에 위안소가 있었고,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전쟁 때문에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어 남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 영토였던 지시마열도(千島列島)의 최북단의 호로무시로에서 중국의 「적봉」(赤峯)이라고 불리운 오지(奧地), 그리고 지금의 파푸아 뉴기니아의 동북단에 있는 라바올에 까지 종군위안부가 끌려 갔다. 필자가 일본 본슈와 당시 조선에도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91년 부터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데 의하면 조선에는 대구, 부산, 전라도에 위안소가 있었다. 일본 혼슈에는 나가노켄의 마쓰시로(松代), 지바켄(千葉縣)의 가시와(柏), 이찌카와(市川), 마즈도(松戸)에 있었고, 같은 켄의 남쪽 다페야마 등에 해군전용 위안소가 여섯 군데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예상치 않았던 곳에 까지 위안소가 있었던 사실은 위안소의 분포만을 알려줄 뿐 아니라 위안부의 인구와도 관계가 있다.

종군위안부의 수는 일반적으로 10 만에서 20 만을 잡는다. 전 군의(軍醫)였던 아소 테쓰오(麻生徹男)와 센다 가코오(千田夏光)는 종군위안부의 수를 8 만으로 잡는다. 그러나 김일면(金一勉)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를 보면 아라후네 대의사(代議士)는 14만 2천명이 였다고 호언하고 있다. 김일면 자신은 20만을 추정한다. 199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종군위안부 문제 신고전화를 통해서 증언을 한 일본 옛 군인은 위안소에서 그리고 유로중에 아주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 위안부의 수는 40만에서 50만은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1992년 6월 중국 연길에서 증언한 연변대학의 박창욱(朴昌昱)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의 만주에서 살고 있던 조선 젊은 여성들도 종군위안부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위안부를 면하려고 조기결혼을 했었다. 종군위안부의 총 수를 아직 알 길이 없는데 그 수의 80%가 조선인 위안부였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많은 전 일본군이었던 조선 남성들과 일본 군인들의 증언, 신고해 온 종군위안부 자신들의 증언과 아소군수의 증언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일본 군대가 마련한 일차적인 임무는 성적 노예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와 장소와 어느 부대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양 각색의 임무가 부가되었다. 물론 입구에 출지어선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위안소에 따라서는 빨래를 해야 했던 곳도 있고 탄약을 날라야 했던 곳도 있다. 간호원 조수가 되어야 했던 위안소도 있다. 오끼나와 도까시끼섬에 있었던 배봉기는 1945년에 들어서 미군의 공

습이 심해지자 산과 골짜기를 헤매며 나무잎, 열매, 풀부리 등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부상한 군인을 간호해야 했고, 위안부 노릇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파라오 섬에서는 중군위안부가 군복을 입고 싸우기까지 했다. 제일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쏜 사람은 조선인 위안부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위안부가 맡은 일 중에는 스파이 일이 있었다. 나가노 켄 마쓰시로 위안소에 있던 몇몇 위안부는 마쓰시로에大本영이 들어서고, 일왕이 이사를 계획한 것을 아는 자를 신고해야 했다. 또한 지보 켄 남쪽의 해군 전용 위안소에 있던 일본 위안부 중에는 군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어내는 임무를 맡았다는 증언이 있다. 이 곳에도 조선인 위안부가 80%였다고 한다. 정보수집의 역할은 일본 여성이 맡았다고 한다.

다음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신고한 67명의 중군위안부 중 비교적 기억이 분명한 25명을 선정해 조사를 했다. 그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끌려간 나이	인원수
12세	1
13세	1
14세	0
15세	2
16세	4
17세	6
18세	4
19세	2
20세	1
21세	1
22세	1
23세	1
28세	1

학력	인원수
무	12
국교종퇴	8
국교졸	2
국교졸업하고 고등과재학중	1
야간학교	1
불분명	1

끌려간 방법	인원수
강제	9
숙입	24
팔림	1
반쯤속고, 반발적으로	1

끌려간 해	인원수
1933	1
34	0
35	0
36	1
37	3
38	3
39	2
40	2
41	6
42	3
43	1
44	1
45	1

끌려간 곳	인원수
일본	4
중국동북부	3
중국 북부	3
중국 중부	2
미얀마	2
파푸아뉴기니	1
한국	1
파라오	1
다이왕	1
자바	1

이외에 6명은 여러 곳을 이동하고 다녔다. 그 중 1명은 여섯 곳이나 이동하였다.

콘동사용여부	인원수
했다	16

* 딱지란 입장권이다. 이것으로 각 위안부가 하

인솔자	인원수
한국인	9
한국인과 일본인	4
일본인	1
일본군인	6
일본군속	1
경찰	1

하루평균 상대한 군인수	인원수
- 10	4
10 - 20	7
20 - 30	1
30 - 40	2
40 - 50	9
50 - 60	2

성병검진	인원수
유	2
무	18

주 1회 5
2주 1회 1
월 1회 1

대가	인원수
현찰	3
군표	1
딱지	7
무	9

하기도 안하기도	2
안했다	2
?	4

루에 몇명을 받았는 지 셀 수 있다.

이상의 도표외에 조사결과 나타난 점을 소개하면 대체로 다다미 석장 정도의 좁은 방에 감금상태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삐」, 「조선 삐」, 「쿠냥」이라고 불리웠다. 「삐」란 여성의 국부를 가르키는 중국속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대에게는 그들이 여성의 국부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쓰다 버릴 물건이었다. 처음부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길림에 있었던 황금주(黃錦周)와 일본 혼슈(本州) 어디엔가 있었던 장덕경(姜德景)은 패전후 일본군이 도망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버린 경우의 희생자였다. 지바깡 가시와 비행장에서는 강제노동을 했던 조선노동자들을 쓸모없어지면 비행장 안에 있던 물웅덩이에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는 남성노동자 뿐 아니라 조선위안부도 쓸모가 없어지면 버렸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가시와에 사는 정정모(鄭正模)가 끈질기게 가시오 시청에 그 자리를 발굴해 보자고 요청하고 있으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쓰다 버릴 물건 취급받던 조선여성 중군위안부들은 조선사람이라고 해서 또한번 천대를 받았다. 일본여성들은 주로 장교상대를 했다. 조선위안부는 대부분의 경우 졸병을 받아야 했다. 군대안에 층층이 떨어지는 무리한 명령, 거기에 따르는 인권유린과 잔악함을 견뎌야 했던 일본군대의 졸병들이었다. 이 밑바닥의 졸병들은 분풀이를 조선위안부에게 했다. 일본군대 제일 밑바닥에 있던 졸병 밑에 중군위안부라는 조선인 여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남성밑에 있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2중의 무게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병사들은 조선위안부들에게 지배자로서 군림했고, 남자로서 힘을 과시하고 약한 자를 찍어누름으로써 자기로 강한 자임을 스스로 다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쓴 말 중에는 「조선사람 주제에 -」였다. 참다못한 조선 소녀들은 「조선사람, 조선사람 하고 업신 여기지 말라. 일본사람에게나 조선사람에게나 천황폐하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대들었다고 한다. 동경의 110번 신고전화에서 증언을 한 옛 군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조선위안부가 천황폐하에 대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한 줄 알고 감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실은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일본사람들의 일왕에 대한 맹신(盲信)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소녀들은 군대와 업자들의 가진 능간에 이용당하였다. 예를 들면 상하이와 남경지역에 있던 위안소에서는 군인을 많이 받으면 계급을 올려주었다 한다. 가슴에 빨간 천조각을 부쳐주고 별의 수효를 늘려 나갔다고 한다. 황군에서는 군인을 많이 받는 위안부에게는 상을 주었다고 한다. 물론 위안부 쪽에서 군인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너무나 무리한 요구,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를 요구할 때 못하겠다고 하면 실신하도록 군화로 차고 구타하였다고 한다. 정대협에 신고한 분 중에는 허가 빠지도록 발길질 당하고 구타당한 사람이 있다.

표면적으로 위안소는 일본군인의 성욕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위안소에 따라서는 그 뒷면을 보면 군대와 업자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했다. 위

안소에 따라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을 위안소의 매상고를 군에 보고했다고 한다. 군대는 위안소의 수입을 파악하고 있었고,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동북부에 있던 위안소에서는 「특별매전세면제표」(特別賣錢稅免除票)라는 표를 주둔지 사령부에서 발부했다. 이 표를 가지고 위안소에 가면 1회에 1원 50전 하는 입장료가 1원이 되었다. 니시노 후미코가 이러한 입장표를 군인이었던 일본 남성에게서 입수했는데 그 표에 적힌 일련 번호는 8337호였다.

아편도 취급하였다. 일본경찰과 군이 중국인 상대로 아편을 퍼트린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동북부에서 중국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임금대신 아편을 준 일은 흔히 있던 일이었다 한다.

어떤 방법으로 정신대가 아편을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그리고 수치심으로 도저히 일본군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아편을 피우곤 했다 한다. 한 조선남성은 강제연행 당했다가 일본이 패전하여 구국선을 기다리는 동료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어느 항구에 머물렀다고 한다. 증언자는 괴로워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아편이 널리 퍼져 있는 가 하면 동남아에서는 히로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도에 어긋나는 위안소 정책의 모체를 본인은 가와시마 야스소가 지은 「北風에 遊女哀歌를 들었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을 보면 1879년 경 호카이도에서는 정어리 대풍(大豊)이었다. 그래서 본토의 일본 남성들이 대거 호카이도로 갔다. 이들은 정어리떼를 따라 북상하였다. 대풍이라 마음은 들떠있고, 동시에 불안도 하였다. 불완전한 작은 배로 정어리떼를 쫓는 일이라 생명의 위협이 동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상륙하는 곳에서 창녀를 찾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매매춘(買賣春)할 수 있는 「하마고야」는 유명해졌는데 그 중에 예사시(江差)라는 곳이 있다. 「하마고야」는 바닷가에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北風에...」의 설명을 보면 「하마고야」는 사방을 가마니로 둘러치고 출입구에 또 한장의 가마니를 늘어뜨렸다고 한다. 시가지에는 유곽이 36채 있었고, 창기가 36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미 16세기에 공창제도가 확립하고 있었다. 아쉬운 사실은 가와시마씨가 「하마고야」에 있었던 여성들의 수를 말해 주지 않는 점이다.

위안소 정책은 지금 본 바와 같이 공창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나온 발상이었다. 다만 위안소에 끌려간 조선 여성들은(일본여성을 제외한 중국, 대만 등 현지 여성들은) 대가를 받은 일이 없었거니와 군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패전과 더불어 휴지가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위였다. 이런 점을 시인하면서도 혹까지도 사시에서 있던 「하마고야」와 그 곳에서 벌어진 광경과, 공공연히 그런 광경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일본의 제도와 성습관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고장 혹카이도는 계속해서 조선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백인이 인디안에게서 북미를 빼앗은 수법으로 일본사람은 아이누에게서 혹카이도를 빼앗았다. 그리고 혹카이도 개척에 조선남성을 데려갔고, 중일전쟁부터 탄광으로 철도공사에, 비행장 공사에 조선남성을 연행해 갔다. 그리고 여기에 위안소를 세워

조선여성을 데려갔다. 흑카이도를 뺀 경험을 살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대륙 침략을 계획하였다. 이 때 조선은 일본의 병참기지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땅과 자연자원은 물론 그 안의 남녀가 모두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조선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이니 하는 문제는 애초부터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대가 위안소라는 것을 착안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리고 12세부터의 어린 소녀에게도 2-3분 간격으로 군인을 상대하게 했다. 정대협에 신고한 종군위안부 조사를 떠나서 위안부 한사람이 몇명까지를 받았나 밝혀진 바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군인이 적을 때는 5-6명일 때도 있다. 그러나 평균 3-40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지바켄 다페야마(館山)에 있는 시로타 스즈코는 30명 쯤을 상대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병사가 미워서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때나 최전선에 나가 있던 부대가 돌아 왔다면 아니면 위안소가 부대를 찾아 나갈 때에는 40-50명을 받게 되는 듯 했다. 중국 동북부에 있던 한 일본인 위안부는 65명까지는 세었는데 그 후 기절해서 몇사람이 다녀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조선인 정신대가 100 명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최근 도쿄에서 110번을 통해 증언한 바에 의하면 134 명의 숫자가 나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현재 종군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살아 있는 사실이 기적과 같다. 정대협에 신고한 위안부 중 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 그들이 얻은 질병은 고혈압, 방광염, 심장병, 신경불안증, 당뇨, 백내장, 결핵, 천식, 좌골신경통, 아랫복통, 두통, 정신이상증, 신경통이다.

이들이 살았던 위안소 생활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다. 이 지옥을 누구의 명령으로 만들었는가. 누구의 책임 아래에서 이 지옥이 경영되었는가. 위 「종군위안부 110번」을 보면 취업 신청서류를 사령부에 내야 했다. 위안부를 취업시킬 때도 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했다. 스즈키 유고(鈴木 裕子)가 쓴 「종군위안부, 내선 결혼」을 보면 보르네오 현지 위안부 50명에 관해서 대만군 지령관(指令官)이 일본 국내에 있는 육군대신에게 전보를 치고 있다. 1992년 1월 방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도쿄 히데키(東條 英機)에게 보내온 보고가 있고, 이쪽에서는 고급부관이 현지에 통첩을 보내고 있다. 당시의 도쿄는 육군대신인 동시에 내무대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도쿄는 일본 뿐 아니라 일본군이 나가 있는 동북아와 동남아 전역을 호령하였던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후 육군성 인사국에는 은상과(恩賞課)가 있었다. 이 과 안에는 민간시설 담당자가 있어 정책적으로 위안부를 책임졌다 한다.

한편 미얀마의 만다라와 필리핀 마닐라 남쪽에서 각각 중대 200명이 전원 몰살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인이 현지여성을 강간해서 현지 남성들이 보복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군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령관 수준에서 나온 명령이 1943년 경에 도쿄가 책임을 지게된 것이 아닌가 한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19세기에 들어 서양의 무력이, 화약의 힘이 동북아로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극도로 부패하고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력을 앞세운 서

양의 통상교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식으로 무기를 앞세우고 남의 나라에 와서 통상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의 짓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고관들이 예를 최고 이데올로기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쇠국주의였다. 반면 일본은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받아 들였다. 한국에 비해 현실적이고 상황판단이 빨랐다고 볼 수 있다. 근대화의 대열에 서기로 작정한 일본은 서양의 것에 가치를 두었다. 후쿠자와 유키찌(福澤諭吉)의 탈아입구(脫亞入歐)사상이 단적으로 이 시대의 일본의 경향을 잘 나타낸다. 아니 오히려 후쿠자와가 일본을 이끌었다고 말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일본이 그를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는 현재 일본의 천연권 지폐에 나쓰메 소세키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 만엔권에는 후쿠자와의 것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일찍 서양의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을 발달시킨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고 침략하기 시작했다. 결국 15년 전쟁을 일으켜 패전했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래의 단결심, 성실성, 정직함이 6.25동란과 월남전쟁 등 이웃나라의 큰 불행에 힘입어 받들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재건되고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패전에서 4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뉘우치기는 커녕 PKO 법안을 통과시키고, 핵원료인 플루토늄을 수입하고 있다. 2010년에 가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핵개발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적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정부는 1992년 1월에 와서 겨우 군의 「간여」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강제연행 사실을 시인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 강제연행 당한 남성들과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소녀들의 노임을 지불치 않는다. 종군위안부의 우편저금을 지불치 않는다. 모든 것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산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5억불의 경제원조였다. 그리고 공적인 행사로서 고관들이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은 특유의 「천황」(天皇)제를 갖는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회복이 빨랐을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 그것이 군국주의로의 회귀(回歸)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 아시아 여성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남성이 낳은 파괴적 힘의 문화를 창조적 힘의 문화, 평화로운 문화로 바꾸어 놓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의 힘의 문화의 끝은 핵폭탄으로 나타 났다. 우리는 파괴가 아닌 창조, 자연을 살리고, 생산하고, 복지사업을 펼치고 민족의 분열을 막고 민족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힘써야겠다.

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여성들이 국제문제와 국사(國事)의 결정에서 부역일의 결정까지, 곳곳에서 정책결정자, 작은 결정자로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때 역사는 새장(章)을 열게 될 줄 믿는다. 파괴의 힘이 이끄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키우는, 창조의 힘이 이끄는 역사의 새 장말이다. 이러한 새 역사의 시작은 평화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가 지금까지의 가부장제 밑에서 발달한 파괴적 문화에 비판을 가하는 모든 남성들과 그 문화속에 희생당한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다.

천황제, 군국주의, 여성

정진성

한국이 일본에 문명을 전달했던 근대 이전까지의 역사가 뒤바뀌어, 한국은 일본에 식민지적 병합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봉건시기에 생산력과 군사력의 발전을 이루고 서양의 자본주의 문명에 일찌기 적응한 위에, 세계 자본주의의 성립과정과 열강들의 세력균형의 상황 속에서 유리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明治維新으로 부터 확립해 온 천황제를 강화시키며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사회를 몰았다.

이후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자생적 근대화의 길을 저지, 왜곡시킨 식민지화와 이를 더욱 혼돈으로 몰아간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일제시기 종군위안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순이 첨예하게 결집되어 나타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일본사회에 뿌리 깊이 존재했던, 그리고 천황제와 군국주의 하에서 더욱 강화, 이용된 여성비하의 구조가 첨가되어서 보다 깊고 중층적인 모순을 이루어, 세계의 식민지사, 전쟁사 그리고 여성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 글은 종군위안부의 성립과 전개에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이룬 근본적인 구조로서 천황제와 그 군국주의적 발전을 그것의 여성에 대한 시각 및 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원인 규명의 시도가기도 하다.

천황제의 확립과 여성

일본의 천황제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접 정치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난립한 세력들을 통일하여 시작된 江戸시대에 들어, 이전까지 무시, 방기되었던 천황은 통일된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했고 幕末에는 천황 중심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중세의 신분 질서의 혼란 및 농민들의 반란에 대해서 지배계급이었던 무사들이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서 민속종교적인 신화세계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천황이라고 하는 이름의 절대주의적 정권의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된 명치정부는 급속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군사적 강대화의 추진력으로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보다 철저히 전국민적으로 침투시킬 것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명치정부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발표함으로써 명실공히 절대주의 천황제를 확립하였다. 이 헌법에서 천황은 모든 통치권의 총괄자, 육해군의 최고 지위에 있는 대원수폐하로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鈴木裕子, 1991a:15) 또한 모든 일본 국민은 천황의 신하이므로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공교육에서 이러한 황국사관이 교육되게 하기 위해서 1890

년 「교육勅語」가 공포되었다.(鈴木裕子, 1989(a):7-16)

이렇게 성립된 천황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매우 엄격한 계급사회로서 극심한 차별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차별의 질서화는 계급에 의해서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학교, 동네,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部落民과 같은 특수한 피차별집단도 존재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대표적인 차별의 질서화의 한 형태로서, 천황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가부장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전체적 체제를 받쳐 준 것은 하나 하나의 가정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만든 「家제도」였으며, 다른 한편 남성의 일탈적 성행위를 흡수하고 이로부터 家제도를 보호,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 公娼제도도 천황 가부장제를 떠받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처와 자에 대한 가장권이 절대시되어 권위와 순종이 기본원리였던 家제도는 江戸中期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江戸末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확립되어 온 제도로서 명치기에는 헌법과 민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中根千枝, 1983:7). 이 법에서 妻의 지위에 있는 여자는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법률상의 의미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夫의 소유물이므로 夫의 승락없이 행동하지 못했다(角田由紀子, 1989:197).

가부장제적 사회체제는 이러한 家제도로 구성되었던 한편,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公娼제도를 발전시켰다. 공창제도는 국가가 업자와 창기에게 허가(鑑札)를 주고 그 대신에 세금을 받는 국가 공인의 買賣春제도로서, 徳川家康시기에 확립되어 명치시기에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매춘은 이전시기 부터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성의 상품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유곽을 중심으로 한(集娼제도) 공창을 확립하여 확산시킨 것은 전란이 계속되어 불안에 떠는 무사들의 성적 욕구를 풀 공식적 장을 만들어 주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家제도의 혼란을 방지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이룸으로서 반항적 성향을 다스리려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다(深江誠子, 1989:202-205). 이것은 남성의 일탈적 욕구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춘은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林千代, 1992:125). 명치정부는 창기에 대하여 매독검사를 실시하였는데(山下英愛, 1992:6-7) 이것은 창기에 대한 배려보다는 가부장적 家, 특히 무사계급과 그 가정의 보호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창제도는 명치정부가 천황제를 확립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천황제의 가부장적 체제의 두 기둥은 家제도와 공창제도로써, 이것은 공히 여성멸시 사상에 바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반영하며 상호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국주의화와 여성

일본의 절대주의 천황제는 명치헌법의 발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일관하여 군국주의적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내적으로는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고, 외적으로 청일전쟁(1894-5)과 노일전쟁(1904-1905)에 승리하고, 대만

과 한국에의 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만주사변(1931)을 기점으로 준전시 체제에 들어가고, 중일전쟁(1937)으로 본격적인 전쟁기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윤리와 권력이 천황에게로 수렴되는 초국가주의적 천황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천황의 통수권을 확대하는 한편, 명치헌법에서 생각되고 있던 내각, 의회, 추밀원등의 체제가 아닌 고도국방국가를 구상하여 구조를 정비하였다(宮地正人, 1988:98-100). 이러한 체제로 전쟁기에 일본정부는 국가 총동원법(1938)을 비롯하여 국민징용령, 징병령(1944)에 이르는 일련의 국민동원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 또한 천황제는 국가기관으로서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도 중요하여, 신권적, 군사적 천황, 대원수적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의 말단까지 침투하였으며, (宮地正人, 1988:99) 이와 함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大政翼贊會 조직 등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본 팻시즘은 서구의 팻시즘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그중 중요한 점으로 가족주의의 성향과 대아시아주의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보는 인식과 함께, 실제로 本家로서의 천황가와 방계가족으로서의 국민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국가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명치시대 이래의 천황제의 가부장제적 성격의 발전인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또한 아시아諸국에 있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는 대아시아주의를 내세우며,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심의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전쟁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식민지의 민족말살 정책을 야기시켰던 것이다(丸山眞男, 1964:29-37). 주지하는 대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한국에 구국적으로 민족말살을 피한 황민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內鮮一體, 一視同仁의 이름으로 일본어 강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다(鈴木裕子, 1991(a):19).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천황의 臣民인 남성을 떠받치는 도구로 여겨져, 한편으로 臣民을 낳아 교육하여 천황에게 바치는 家 속에서의 여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민인, 전시하의 불안한 상황에 있던 皇軍을 위무하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적 역할이 주어졌다. 이것은 천황제 초기부터의 전반적 여성비하와 계급에 기초한 차별적인 여성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이었다.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여성교육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서 교육의 틀은 家와 國과 母의 결합이었다. 1931년에는 대일본연합부인회가 이 목적을 위해 발족되고, 다음해에는 대일본국방부인회가 만들어졌다(鈴木裕子, 1989(a):22-23). 중일전쟁 후,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모성을 통해서 여성의 사상동원을 도모하여, 「일본의 母」, 「군국의 母」, 「靖國의 母」, 「健兒의 母」, 「健民의 母」, 「興亞의 母」, 「母를 찬양함」 등의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鈴木裕子, 1989(b):21-23) 1940년의 大政翼贊會에 부인들이 참가하고(鈴木裕子, 1988:53-73) 여러 부인단체와 이들의 연맹체를 설립하여 여성 입장에서 총동원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황민으로서의 자녀양육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의 지위에서 소외된 하층여성, 대부분은 娼妓들이 황군위무의

역할을 떠맡았다. 전시 체제에서 군인들의 건의를 고양하고, 불평불만의 폭발을 예방하며, 강간예방을 위해서 '황군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만들어진 종군위안부 정책은 (麻生徹男, 1939) 공창제도가 戰國시기末 무사들을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가부장제의 논리에 바탕한 것으로 공창제도의 한 변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鈴木裕子, 1991(a):18)

군국주의 정책으로 군인의 수가 많아져 위안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족적 차별에 의해 특히 여기에 민족말살의 목적이 더해져 대대적으로 한국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다. 무사들을 위해 명치시기부터 있었던 창기에 대한 성병검사가 종군위안부에게도 시행되었으며 여기서 '일본인 대부분이 급성중증인대 비해 조선인은 극히 소수만이 화류병의 의심이 간다'라고 한 당시 군의의 보고(麻生徹男, 1939)는 이미 노일전쟁 후부터 군인들의 화류병으로 인한 병력약화에 부심하고 있던 일본군대에서(山下英愛, 1992:16) 한국 여성의 효용성을 더욱 인정시킨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 여성의 연행의 범위가 넓혀져 갔지만,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던 층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그것은 사기 및 강제에 의존했던 모집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족차별 내에 다시 계급차별이 일어났던 것이다. 전반적 여성의 차별 위에서, 일본여성 내의 계급차별이 민족차별과 연결되고 여기에 다시 계급차별이 더해진, 중층적 차별의 희생자가 바로 조선인 종군위안부였던 것이다.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보는 시각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인 종군위안부의 연행은 천황제가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군대의 필요에 의해 세운 종군위안부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강제력을 통해 시행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여성비하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일련의 여성정책의 진전과정과 군국주의화에 따라 전개된 식민지 정책의 진전과정이 만난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는 국가, 민족, 성 및 계급의 모순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가지 차원의 문제의 결합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기본적인 그러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얽혀 하나의 실타래를 잡아 풀어 낼 수 없는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순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군국주의를 폭로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깨우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차별과 착취를 고발함으로써 세계에 인권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고, 성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일본과 세계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에 앞서 우리 국민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성과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가 우선 이것을 민족의 문제로 인식을 공유할 것이 절실하다고 보

졌다. 그런 위에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와 가부장제적 천황제의 문제점 및 계급차별의 구조를 파악할 때,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山下英愛, 1992,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角田由紀子, 1989, 「性暴力と天皇制」, 鈴木裕子·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 高橋喜久江, 1992, 「今日の賣買春問題」, 立川. 女の暮らし聞き書きの會, 『つむぐ』 8호.
- 宮地正人, 1988, 「政治史における天皇の機能」, 歴史學研究會 편, 『天皇と天皇制 考える』, 青木書店.
- 鈴木裕子, 1988, 『フェミニズムと戦争』, マルジュ社.
- _____, 1989(a), 「ヒロヒト氏と昭和史と女」, 鈴木裕子·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 _____, 1989(b), 『女性史 拓く 2』, 未來.
- _____, 1990, 「いまこそ"從軍慰安婦"にこだわる」, 『毎日新聞』.
- _____, 1991(a), 「從軍慰安婦問題と日本女性」,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考える會, 『挺身隊問題資料集 1』.
- _____, 1991(b), 『朝鮮人從軍慰安婦』, 岩波ブックレット No.229.
- 麻生徹男, 1939, 『花柳病の積極的豫防法』.
- 深江誠子, 1989, 「賣春制度と天皇制」, 鈴木裕子·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 女性史總合研究會 편, 1982, 『日本女性史』 제 3,4,5권, 東京大學出版會.
- 林千代, 1992, 「日本型賣買春文化の成り立ち-家制度に縛られた性」, 立川. 女の暮らし聞き書きの會, 『つむぐ』 8호.
- 中根千枝, 1983, 「家の構造」, 東京大學公開講座, 『家』, 東京大學出版會.
- 川島武宣, 1950, 『日本社會の家族的構成』, 日本評論社.
- 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정신대 문제해결운동의 전개 과정과

윤미향

요즈음 한.일간의 현안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외교적 쟁점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우리 민족의 분노와 자존의 문제로 얽혀 있는 사안이 바로 여자 "정신대" 문제이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신대 문제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어디에서 얼마만한 정신대가 어떤 방법에 의해 끌려갔는지, 위안소 안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당했던 비인간적인 사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패전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 전혀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유엔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일본의 만행은 광란 그 자체였다. 우리민족의 말살정책으로 그들은 우리의 이름과 언어를 빼앗았고, 조선전역에 걸친 모든 것, 조선의 얼까지 빼앗아 갔으며 남자는 노무자로, 군속으로 강제 징용하여 갔고, 결국에는 20만에 이르는 조선의 어린 처녀들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소위 황군의 위안부로 잡아가 쏘조선민족 말살을 기도하였다.

그런데 왜 민족수난의 희생이 된 그 분들의 삶을 우리들은 민족자주의 물결로 승화시키지 못했는가? 벌써 일제국주의가 조선의 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한지 어언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정신대 할머니들과 소수의 여성단체들만을 외로운 싸움터로 보내놓고, 침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식민지의 잔재를 과감히 칼로 도려내고, 조선의 딸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겪었던 수난을 앞으로 올 일본 군국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정신대 문제의 총체적 실상을 규명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8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성장한 36개의 여성단체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여 1990년 11월 16일 발족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주,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민주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주도해 온 교회여성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수난사 속에서 당한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되었으며, 특별히 관광산업을 진작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여성의 성적 침탈이 자행된 '기생관광'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관련에서 정신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정신대 문제를 여성운동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I. 끝나지 않은 전쟁처리, 전쟁책임

- 식민지 지배와 전후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한일기본조약-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배상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조선인 군인, 군속, 위안부의 배상요구에 대하여 '65년 한일 양정부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가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및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952년 1차 회담으로 시작된 한일회담이 1965년 7차 회담으로 결말을 보게 되기까지 과거의 침략시대에 대한 일본측의 사죄 및 반성의 의사표시는 전혀 없다. 해방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된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기초위에서 새롭게 수립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그것에 대해 마땅한 배상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5.16이후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발전 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한일협정에서 구하게 되자 결국 무상3억,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으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의제중 일제하의 강제연행자 문제와 관련있는 대일 재산청구권 문제를 살펴보면 내용중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이라는 구절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조항에서도 정신대에 관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으며 일본은 국가개입 여부를 부정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일 국왕이 '통석'이라는 모한 용어로 사죄 비슷한 말을 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대 문제 피해배상 청구권 조차도 한일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60년대 초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보상과 사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경제협력 방식으로 결말을 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이를 강요했으며 미국도 한국이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일본에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다. '65년 한일협정 조인 후 일본정부는 한국 독립축하금으로 무상, 유상 5억불을 준 것이라고 일본국민들에게 설명했고, 한국 정부는 국회에서 사죄, 보상의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정반대의 설명을 한 것도 발견된다.

그리고 한일 양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전후 배상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양국민간의 피해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그것은 엄연히 별개이다. 전쟁책임을 묻는 데는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이 있으며 그 중 전쟁배상은 당사국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포기할 수 있으나 민간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안상운, 일본법정에서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1992. 4.22 정신대 문제 공청회 발제).

일본의 경우 일소조약으로 일소정부간 보상문제를 매듭지었으나 일본정부는

최근 「민간인들의 배상청구는 별개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배상청구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일본정부는 한국 민간인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낸 배상청구에 대해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핑계로 정신대문제를 비롯 전후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양심적,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 해방 40년후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의 부상

1. 여성운동의 과제로 삼은 정신대 문제

70-80년대의 국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운동단체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수난사 속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되었다. 특별히 외화획득의 명분하에 부상된 관광산업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여성에 대한 성적 침탈인 '기생관광 정책'이 자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관련에서 정신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정신대 문제를 여성운동의 과제로 삼게 된다.

그 중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정대협을 발족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교회여성연합회는 1988년 2월 12일부터 15일 동안 정신대 발자취를 따라 정신대의 굴욕적이며 쓰라린 역사적 현지답사를 시작하는 한편, 강연회 개최 및 자료발굴과 회원들에게 홍보, 교육작업을 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만행에 대한 인정과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였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방, 여학생대표자협의회는 정신대 문제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규명하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성명서에서는 일본정부에게 6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이것은 아직도 정대협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첫째, 조선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둘째, 만행의 전모에 대한 진상규명. 셋째, 공식적 사죄. 넷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 다섯째, 생존자와 유족에게 배상. 여섯째,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가르칠 것.

이 때부터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단체들의 조직적 공동대응이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2. 정대협의 조직과 활동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조직과 활동

1990년 11월 16일 36개 여성운동단체와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여 정신대 문제의 총체적 실상을 규명하고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체인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게 되고 이 때부터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된다.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폭로, 선전하는 한편 한일 양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여러방면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그러한 정대협의 활동은 대일본싸움, 대한국정부 싸움, 국제연대활동과 국내 연대활동, 그리고 내부 연구및 교육, 홍보사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대협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켰던 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증언이었다. 그것은 정대협의 증인찾기 노력으로 개설되었던 정신대 신고전화를 통해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신대의 만행과 잔학상이 폭로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2. 정대협의 활동들

1) 대일본투쟁

대 일본투쟁으로 1991년 1월 8일에는 '가이후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힌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탑골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범국민적인 관심을 도출해 냈으며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12-1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를 하고 있다. 태평양 유족회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중요하다. 6월 1일 동경에서 첫 재판이 있었고, 그 소송에는 중군위안부 9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망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적인 여론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대한국정부 투쟁

대한국정부 투쟁으로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것과 독립기념관 내에 추모비를 세워 다시는 이 민족의 역사에 이러한 굴욕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되게 해야함을 주장해 왔다. 또한 현재 생존해 계신 정신대 피해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해 왔다.

3) 내부사업

정신대신고전화 개설

정대협은 그 당시 중군위안부였던 증인찾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1991년 8월 14일에 원폭 피해자인 이명희(67세) 할머니가 김학순 할머니를 직접 '교회여성연합회'에 모시고 와서 김학순씨가 중군위안부였음을 폭로하는 최초의 증언을 하게 된다. 이 첫 증언자의 등장으로 정대협의 활동은 국내에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된다. 그 후 곧 정대협은 730-4400(현재 365-4409)번의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증인찾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현재

문옥주 할머니를 비롯하여 총 250여 건의 정신대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전화에 접수된 생존자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민족말살 정책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성의 인권유린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후 일본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처사를 절감할 수 있다.

국제적인 연대활동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NGO)들에게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실을 폭로,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에 동참을 호소해 왔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정신대문제를 접수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92년 5월에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현대판 매춘문제 관련 실무위원회회 외 3개 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8월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신대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내단체와의 연대활동

정대협은 회원단체가 아닌 국내 다른 단체외도 연대의 틀을 형성해 가고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YWCA」, 「인도주의 의사협회」 등 정신대문제에 관심있는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존운동권이 관련맺지 못했던 「국제 라이온스크럽」,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들과도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신대연구회의 활동

정대협의 운동에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헌, 자료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15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은 정신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듣고, 그것을 자료화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궁화자매회 조직

지난 5월 1-2일 양일간 감리교여선교회관에서 「라이온스크럽 여성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정대협에서 전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경로간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모임에서 할머니들은 그들의 지조회를 만들었고, 그 모임을 「무궁화 자매회」로 명명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정신대문제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일본의 정신대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활동교류

일본에서 사회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 특히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일본내에서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들의 후세에게 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위한 강연,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에 생존해 계신 증인들을 모셔가 직접 피해상황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에서 41명의 원고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한 모금활동도 아주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III. 남은 문제들

위와 같은 많은 정대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양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민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피폭자, 사할린 간류자등 강제연행을 당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과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비단 중군위안부 뿐만 아니다. 강제징용 및 징병자, 조선인 피폭자, 사할린 간류자 그리고 근로정신대들 역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희생을 당해 왔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정신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전후처리문제를 중군위안부 문제로 축소, 생존자 및 분을 위한 기금상설 등으로 전후책임이라는 큰 물결을 막으려 해왔다. 그러나 12세, 13세에 공장에 끌려가 어떤 보상도 없이 일본의 전쟁 물자를 생산해 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과 태평양전쟁 피해의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명부공개, 유골귀환, 공탁금 반환 등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생계대책 필요

정신대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운 때에 민족의 수난을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체험한 분들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해방후에도 역시 사회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아올 수 밖에 없었다. 해방후 조선의 정세가 일제시대의 연장선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고, 두개의 나라를 유지해 준 분단 이데올로기는 일제국주의 청산보다는 제국주의 하에서의 충신들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정치로 일관하여 왔기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또한 잘못된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할머니들의 과거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조차도 용납할수 없게 되어 있었고,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제국주의의 고난에서 해방되지 못한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분들의 아픔은 이 민족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 진상규명과 역사정립 및 책임부분을 계속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분들의 어려운 생활돕기에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청된다.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제잔재의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정책발표나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대」실태조사 발표도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정신대 문제자료들의 일부를 짜집기식으로 묶은 것에 불과하며, 강제연행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것도 70년대 초에 발간된 자료들, 그것도 현재 일본에 의해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있어서도 조사나 검증없이 아주 피상적으로 몇 사례들을 예로 나열했을 뿐이다. 정말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증언 청취를 해야할 것

이며, 다음으로 구 총독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무부 관할의 각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구 식민지 자료들을 발굴하여 그 당시 각 면, 군 단위로 정신대 인원 모집수와 방법 등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대응의 과제

우리는 지속적인 통일운동속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냉전이어서는 안된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남과 북은 하나였고, 똑같은 고통을 강요당한 한 민족이다. 지금 남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에서는 정치적으로 조일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쟁범죄배상을 확실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 모두가 일본으로부터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내고 배상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때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들에 대한 야수적인 폭력, 정신대를 더 이상 역사 속에 묻어둘 수 만은 없다. 이제 정신대피해배상을 받아내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남북 칠천만 겨레가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다. 이 공동대응의 길은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업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헛된 망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칠천만의 힘을 모아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한반도에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모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와 미국의 긴장고조 책동을 막아내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에 대한 범국민 연대운동 필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핵원료 플루토늄을 수송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위대 해외파병 등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희생된 경험을 지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의 PKO법안에 의거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일본의 방위비 증가를 가져오고, 군사력 증강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넘어 그에 상응할 정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가진 일본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시아 전역의 일본화 또는 일본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 지역통합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과거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그것들이 오늘날까지도 민주화와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분할, 통치했던 대로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평화로운 통일을 원치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일된 한반도의 힘이 강해지면 일본의 미래의 적이 될 것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가상적론(暇想敵論)'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할 일은 자위대의 파병대상에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유엔 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의 특별대표인 야카시 야스시는 5월 12일 미야자와 수상에게 오키나와 에 PKO훈련과 보급기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이외에 PKO출동이 필요한 곳은 미얀마, 카슈미르, 한반도”라고 하여 자위대가 PKO깃발과 일장기를 들고 한반도에 재상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혹시 남북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본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과거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대책활동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범 국민적인 연대활동은 현재 정대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전후책임문제에 대한 촉구와 철저한 진상규명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므로써 진행될 수 있다. 일본이 과거 그들이 저질러 놓은 죄과도 청산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아시아 각국을 향해 펼치려는 것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거대한 음모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정대협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과거 정신대 문제가 단순히 과거로 묻혀지고, 끝난 사안이 아니라 그것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부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신대 문제를 일 군국주의의 강화를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대문제를 보면서 누구나 민족의 자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정책에 의해 여성들이 성폭력희생물이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지금도 ‘현대판 정신대’ 기생관광 여성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미국·일본인에게 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패전국인 일본이 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없애버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신대 문제는 분명히 그 진상이 누구에 의해서건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과 여성의 자긍심을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이나 여성들이 다시는 이러한 만행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신대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보고 1]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여성

스즈키 유우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 이것이 왜 일본의 토양속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점은 무엇인가, 라는것. 둘째는 가부장제의 문제, 이 가부장제 사회와 근대 일본에서의 국내적인 성침략, 즉 일본 여성에 대한 성 침략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대외 침략 노선과 종군위안부 정책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밖으로의 성 침략, 이두가지는 구조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공창제도의 문제이며, 셋째는 근대 일본의 부국 강병(富國強兵) 노선, 이것은 다름아닌 침략 노선이었는데 이 대외 침략 노선과 여성에 대한 성 침략은 하나의 구조속에 있는 것입니다.

1. 「종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점

조금전에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 군대 위안부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일본의 군대는 황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황국위안부라고 불러야 하지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위안부들이 자기 스스로 병사들을 위안한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황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 강간을 당한 여성”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춘이라는 용어도 賣春이라고 써 왔지만 이것도 남성문화가 만든 말이며 저는 買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본적 시점의 하나는 「위안부」를 강요당한 대부분의 여성이 일본 식민지하의 여성들이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전쟁동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후 40여 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의미에서 전후 책임이 첨가됩니다.

둘째는 이것이 성의 자유를 철두철미하게 유린하여 범했다는 의미에서 성적 자유의 침해, 억압이라는 측면입니다.

셋째는 이것이 국가에 의한 「강간」이었고, 이 국가 범죄가 당시 일본군 즉 천황의 군대=황군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천황제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2. 가부장제(남권) 사회와 「성침략」

(1) 이에(家)제도(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 억압

근대 일본에서는 여성을 집 속에서 가내노예로 가두기 위하여 이에제도를 창출했습니다. 이에제도와 공창제도의 문제를 빼고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군위안부」제도. 정책의 근간은 근대 일본이 창출한 「가제도(이에세이도: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공창제도」입니다. 1871년 「신틀강령」이후 1898년 공포의 「명치민법」에 의해 다듬어져 나온 가족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계 혈통주의의 제도화입니다.(남계 혈통주의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된 가문이 천황가로, 현재도 변함이 없다. 천황가는 가부장제=성차별의 심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한정되고 남편의 시중을 드는 것, 남편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친하게 교제하거나 연애를 할 자유는 전혀 없고 남편과 그의 집에 종속해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범을 어기면 형법의 간통죄가 그녀에게 용서없이 적용되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남성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여성은 어릴 때부터 아내가 되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도록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특히 고등 여학교부터는 가사, 재봉, 요리 등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교육, 즉 양치현모 교육이 주류였습니다. 여성을 이러한 가내노예로 하기 위하여 정치참여권, 노동권,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2) 공창제도

이상과 같은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공창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창제도는 에도시대(江戸時代)까지의 유곽제도를 근대적으로 재편한 것으로서 「명치국가」가 탄생하고 겨우 5년후에 확립되었습니다(1872년경).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관리매춘제도(管理賣春制度)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유곽업자(遊廓業者)에게 관허(官許)의 감찰, 즉 허가를 주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편, 그들로 부터 세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군위안부」 제도가 일본군 속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은 이 공창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창제도하에서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또한 성의 자유가 없고, 국가가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종군위안부」 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사들은 「성적 위안」을 받게 됨으로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천황제 군대 속에서의 불만의 폭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부장제하에서 아내들의 성은 남편의 자식을 낳는 「생식을 위한 성」이고, 한편 공창제도하의 「창부」들의 성은 남성의 쾌락을 위한 「쾌락의 성」이었습니다, 즉 그녀들에게는 「성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부장제.공창제하의 남권사회에 있

어서 아내와 「창부」들은 같은 위상에 선 피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3) 대외침략과 「성침략」

명치기 최대의 계몽가 후쿠자와 유키찌(福澤諭吉)는 「탈아론(脫亞論)」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는 또한 「성침략」의 이데오로그이기도 합니다. 1896년에 후쿠자와는 어떤 논설속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인 남성을 위해서, 또 해외에 주둔하는 일본군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지기양양(志氣昂揚)과 성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일본인 「창부」의 해외 「출장(出稼)」을 장려했습니다. 「종군위안부」의 발상이 이미 이 시기부터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 공창제를 도입하고 조선반도에도 그 후 총독부 권력에 공창제를 실시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단서가 된 1931년의 류조호사건(柳條湖事件)을 계기로 이듬해 32년, 일본군부의 관동군(關東軍)은 괴뢰국가 「만주국」을 수립하지만, 「만주」지배를 고정화하는 방책으로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농민의 대량 이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대륙신부(大陸花嫁)」계획을 국책으로서 실시하고 적령기의 개척민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만주」에 보내졌습니다. 「중국 잔류 일본 고아」나 중국 잔류 일본 여성의 연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륙 신부」정책에는 많은 여성의 여자교육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집단중매, 집단 결혼식도 행해졌습니다. 그녀들은 「만주」개척과 「만주」지배의 고정화를 위해서 남자들=개척민의 「성적 위안」자로서 또한 노동력으로서 그리고 일본민족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군국지배층과 권력에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황민화 정책」이 맹위를 휘둘렀던 당시, 미나미 지로우(南次郎) 조선 총독(육군대장)은 국책으로서 「내선결혼(內鮮結婚)」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인을 일본인과 결혼시킴으로서 문자 그대로 민족성을 박탈하고 일본과 일본인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권력에 의한 일본 여성에 대한 「성침략」과 대외침략은 그야말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개의 구조적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여성

(1) 「위안부」 사냥과 출산장려(낳아라, 늘려라)

가장 많이 「위안부」로 공급되어진 조선 여성의 경우 「위안부」의 연행은 1938년 경부터 45년 일본패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연행이 행해진 것은 43-44년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무를 막론하고 「위안부」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그당시 여자 정신대가 만들어지고, 44년 8월에는 직령으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공포되어 여자의 근로동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조선반도에서는 「여자정신대」등의 명목으로 「위안부」사냥이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 시기에 「남아라!, 늘려라!」가 군부를 선두로 외쳐졌습니다. 소모품 취급의 병력, 노동력의 「인적 자원」의 「재생산력」으로서 「모성」은 가장 찬양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식민지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간 것과는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 「내지」의 어린 딸들을 「위안부」로 했다면 지금 얘기한 「인구정책(출산정책)」이 파탄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여성들을 연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뺄수 없는 민족차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군국지배자들의 간교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지 민중여성들로부터 「생식능력」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군위안부」정책이 극도의 민족말살 정책이었던 증거입니다.

(2) 왜, 지금까지 문제화 되지 않았는가?

이처럼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민족차별을 드러낸 「중군위안부」제도(문제)가 일본사회에서 문제화 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보상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그 책임을 기피해 왔습니다. 1992년 7월 6일에 일본정부의 중군위안부에 관한 조사보고도 매우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것이었으며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965년에 일본과 한국간에 체결된 일한조약과 제협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두번째,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와 대응을 뒷받침한 것이 조선반도의 분단 고정화(일본정부는 분단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의 역대 보수정권은 조선반도의 분단 고정화와 냉전구조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 전쟁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세번째, 「명치」이래 일본민중에게 뿌리 박혀온 자국민 우월의식(「황국민」의식)과 그 한편으로서의 아시아 멸시의식, 조선멸시의식이 정부의 부조리한 자세를 받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 일본민중은 여자도 남자도 공범입니다.

네번째, 이것이 천황의 군대, 황군의 조직적 범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면 천황제의 근간에 닿게 됩니다. 일본사회는 전후 일관해서 이 천황제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천황제 존재가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인권의식을 얼마나 왜곡했는가 기술할 필요도 없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사회에서는 천황제의

비판은 터부(taboo)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여성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페미니즘과 전쟁』이라는 책속에서 왜 일본여성들이 정치적 참가의 기회가 없는데 전쟁협력을 하게 되었는데에 대해서 특정 인물에 한정하고 고찰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체제, 즉 전쟁협력구조에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가설을 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가, 협력, 해방의 논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페미니즘이 천황제와 그 사상에 대항하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 모성은 천황제에 이용당하는 핵심고리가 되었습니다.

「명치」이래로 일본 기독교 부인 교풍회를 비롯한 폐창단체(廢娼團體)는 공창폐지, 「매춘」 방지운동을 여러해 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성의 억압을 여성 전체의 인권문제로서 받아들이는 시각은 솔직히 말하자면 약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매춘」 문제는 특정 여성의 문제이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풍토, 토양이 지금도 남성들의 「매춘, 행위와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춘여행 등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성침략」을 우리 일본 남성이 범하고 있는 것에 일본 여성이 무관심 내지 용인한 것은 「중군 위안부」 시대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 여성은 안에서는 가부장제=남권사회의 희생자(피해자)이었지만 밖으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억압에 가담자(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와 「가해」의 명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 일본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탄없는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다카하시 기쿠에

아시아 각국의 자매들 앞에서 가해국 일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일본에서의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된 것은 윤정옥 선생님과 알고 나서 부터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최한 「여성과 관광 국제세미나」(1984년 4월)에 출석해 윤선생님을 만나, 귀국한 후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선구적으로 하신 센다씨의 저서 「종군위안부」 등을 부쳤습니다. 그 해 여름 일본에 온 「윤정옥 씨를 둘러싼 회」를 열고, 센다씨를 소개하고 또한 지방 현 다페야마의 부인촌에 안내해 드리고, 몇해전 세워진 종군위안부 비를 견학, 시설장 후카즈 부처 등과 일·한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간행된 서적 인쇄물을 부치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17일 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정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작업을 도우면서 12월 1일, 「매매춘 문제와 대항하는 회」에서 「인권과 전쟁을 생각하는 조선인 강제연행」, 「종군위안부」를 열어 윤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인 동경 YWCA 홀이 넘칠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일 여성그룹의 출판활동을 비롯해 각지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의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윤선생님도 자주 초대되어 일본에 와서 각지에서 강연, 또한 일본 기독교 협의회 총회(1991년 3월 19일) 결의에도 참여하여 발언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때는 이 효재씨와 나가노현 마쯔시로의 지하 대본영 및 위안소를 돌아 보았습니다(지금 그 곳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 요청 활동은 여러 단체가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매춘 문제와 대항하는 회」에서는 1990년 12월 1일 집회를 알린 후 91년 6월 6일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면회 요청서를 건네고, 최근 7월 3일에 외무성 차관 가키자와 씨를 면회 요청했습니다. 그 외 각 여러단체에서 내각에 요청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야자와 수상 방한 전에 아사히 신문이 위안소에 구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는 군, 공권력의 관여를 인정해 그 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행동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동경에서는 종군위안부 110번이 설치되어 3일 간에 235 건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편

집위원회에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동경 이외에도 사이타마, 오사카, 교토, 나가사키, 후쿠오카, 나라 등에서 110번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망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에는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입니다.) 「매매춘 문제와 대항하는 회」에서는 양원의장, 각 당, 전 여성의원에게 요청, 또한 참가 의원들의 각 지방 의원에게 엽서작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부인 교풍회는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전 국회위원에게 보냈었습니다. (750명에게 보냈는데 반신이 있었던 것은 3명뿐)

남성이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전쟁책임을 지는 국회결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여기저기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평화를 희구하여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시민집회가 각 곳에서 열립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시민집회는 전국 각 곳에서 개최되어 윤정옥 씨를 맞이해서 하는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KBS 제작 「침묵의 한」(1990년 8월 15일 방영)을 더빙해 상영활동을 추진, 시민집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YWCA나 제일 여성그룹에의 출판물 발행도 왕성하여 간행이 매스컴에 소개되어 문제제기가 확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즈키 유우코 씨의 이와나이 북크레트 간행도 시기 적절하게 출판되어 판을 거듭해 찍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대협의 유엔에 보내는 문서도 일본어로 번역해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룹의 내일, 예를 들어 1990년 10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도의 여행, 또한 1992년 2월말의 종군위안부 추도의 여행 등이 열려 신문, TV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재판에서 원고인들의 내일, 특히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내일은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내일은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집회 참석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매매춘과 대항하는 회에서는 재판지원 기금 모금활동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신일본 부인의 회」는 모금활동과 서명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오카에서는 문옥주 씨의 군사우편저금 원부 발견, 오키나와에서는 위안소 조사활동 등, 일본 각지에서 대소 시민활동,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매스컴이 보도해 운동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를 보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전쟁 책임과 관련시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 소수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들이 많이 읽고 있는 「문예춘추」 잡지에는 반대 논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본인 증언자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여 본제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잘 등장하는 여성 「문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론권 행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세력을 배후로 한 일본 정부는 군 관여는 인정했지만 7월

6일에 발표된 자료속에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한다던가 국회 결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운동의 지지자는 확대 한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한」을 본 도호크 지방의 어떤 나이든 농촌 여성은 「몰랐다. 사죄하고 싶다. 이 마음을 한국 사람들과 일본 정치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였고, 삿포로의 교풍회 회원은 비데오를 보고 목메어 울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여자들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거나 진상을 숨기면 신뢰할 수 없다. 왜 정부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창피하다고 화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 고급관리들이(부정적인 대중의 의견이 배후에 있음) 좁은 입장에서 국익을 지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많이 깎이고 있음을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현상을 초래한 것은 결국 우리들 주권자의 실태 반영이겠지요. PKO 법안 통과, 참의원 선거 결과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전후책임의 문제는 먼저 사실을 인지하고(역사인식), 사죄하고 보상, 그리고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육을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에 인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는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 일본 침략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자매 여러분과의 연대속에서 경제대국이지만 마음은 빈곤한 저희 일본의 정신적 재건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회의에 출석에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일본보고 3]

일본 국회에서의 활동

시미즈 스미코

(사회당 국회의원, 일본부인회의 의장)

제가 한국의 여성단체와 직접 위안부 문제로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은 1990년 10월이었습니다. 오끼나와에서 열린 위안부, 군부의 위령제에 참가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대표 3명을 도쿄에 불러 위안부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여성계에서 내놓은 가이후 일본수상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외무성과 교섭하여 여러분을 외무성에 안내하여 정부에 대해 반드시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약속시켰습니다. 이 때부터 한국여성들과 직접 연대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전후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에 대한 죄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여성들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회에서의 활동은 자동차의 바퀴처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위안부 문제를 첨예하게 들어내게 하고 性的 문제, 특히 인간의 존엄과 민족존엄의 회복을 요구하여 오늘날까지 가려져 왔던 역사적 범죄를 드러내고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반성과 양심을 불러일으킨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 긴밀한 연대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에서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의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녔다'라는 정부측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역시 1990년 5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할 때 일본에 대해서 강제연행 당한 70 만, 100 만이라고 말해지는 조선인의 명부를 반납해 달라고 하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야당 국회의원이 일본정부에게 이 명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답변은 그야말로 일본의 과거 역사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 때부터 1년 반동안 국회에서 정부에 대하여 군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추구하고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예를 들어 1991년 8월 참의원 예산위원회 때 윤정옥 선생님께서 일본의 국회 방청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보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 때 위안부는 군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시킬려고 질문을 했지만 정부는 군은 관여를 안했다는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

다면 조사를 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보낸 공개서한을 수상이 읽었느냐, 읽었다면 빨리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수많은 군인, 군속을 비롯한 피해자가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 때 피해자나 유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정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모두 일한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성과는 '일한조약에 의해서 국가간의 조약은 일단 성립했으나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소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일본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존재한다'고 질문했더니 겨우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

작년 12월 6일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의 여러분들과 김학순씨가 일본정부를 고발한 재판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나는 전 위안부였던 한 사람입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의 관여를 나타내는 정식 기록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국방장관에 대해 그 발언의 취소를 요구할 것을 국회에서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회 속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는 민간의 협력을 얻어서 피해자로 부터의 청취, 미국의 공문서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에서 처음으로 정부는 조사를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방위청과 경찰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12월 10일에 한국 외무부로 부터 일본정부에 대해 더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의 여론을 막을 수 없다는 요청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결코 일본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를 확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은 올해 들어 미야자와 수상 방한 직전에 방위청 도서실에서 공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속에 군의 위안부 종업부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겨우 정부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관여를 공식으로 결론짓는 것은 7월 6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국회에서는 저의 동료인 도이따카고, 이또히데고, 다께무라 야수고 등 6명이 집중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로부터 69점의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전면적으로 관리 통솔한 사실이 나왔으며 그 자료 속에 위안부 정책의 목적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위안소를 설치했는가 하는 원인, 군 당국의 목적, 위안소의 수, 그리고 위안부 수가 몇 명 보고되고 있는가, 지역적, 민족적 범위는 어떤가, 연령과 경영의 실태, 지휘, 명령자의 이름 등을 질문했으나 '연령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12살 13살이

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밝혀지면 일본정부가 각국 여성들로부터 더 비난 받을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휘, 명령자에는 어떤 이름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각총리대신 히가시구니 나루히고, 참모총장 우메즈요시지로우, 육군대신 도조히데키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와 군이 조직적으로 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외무대신의 답변은 '일본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는지 모른다'는 문제발언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아라후네 대의사가 '14만 2천명이라는 조선인 여성이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질문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비전투원의 위안부를 전쟁터에 데리고 간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편의 흡인소와 관련하여 군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위안소 설영이라는 의심도 자료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일한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실태에 대해서 다같이 추궁하여 왔습니다. 이 조약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옥주 씨가 군사우편 저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도 국회에서 추궁하였습니다. 당시 야권 우체국은 400개 소 있었고, 현재 73만 구좌, 21억 5천만엔이 지불되지 않는 채 남아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적 인권의 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제일 한국, 조선인의 차별문제, 이것은 국제 인권규약 제 26조의 평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전쟁 희생자에 대한 원호법은 13개가 있는데 모두 구 식민지 출신자인 제일 한국, 조선인에게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군인, 군속으로서 징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조항을 두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모순을 모두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기술 문제는 국회에서 참고인을 불러야 한다는 것, 일본과 한국이 합동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한 예산 조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 전후 보상법을 만드는 것과 국회에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 이러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왔습니다.

외무대신은 '이것은 인도상, 정치상의 문제임으로 조사가 끝난 단계에서 어떤 정치상의 배려를 하고 싶다. 그러나 일한 조약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개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인보상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7월 6일에 정부는 조사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관여를 공식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27 건의 조사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극히 사무적인 것이며 체험자로 부터의 청취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조사

속에서는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징용했다는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견해입니다. 또 앞으로도 조사는 계속하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금제도 등의 어떤 조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는 전체상을 명백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증언자로 부터의 청취, 또 전쟁터에 보내진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데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이 많은 피해자의 생활원조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관한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안부 문제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 즉 군인, 군속, 강제연행, 피폭자, 사하린, BC급 전범, 미지불 임금의 문제 등 전체를 일본의 전후책임으로서 실현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과서에도 쓰게 하고 동시에 전후 보상법을 일본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피해를 입은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전후 47년이 지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우리들의 부정의를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과거를 극복해 나가는가, 일본내의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어떻게 변혁해 나가는가 라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 보상의 실현을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과 화해와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PKO, 즉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의한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는 여성차별과 민족차별,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에 의하여 여성을 성적 노예로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어떻게 여러분들과의 연대운동 속에서 추구하고 나가는가, 그리고 진상을 명백히 해 나가는 것이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본정부에게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해 낸다면 세계사 속에서 성차별 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적 존재방식,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규탄의 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아시아와 세계의 여성들이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큰 연대운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1995년은 중국에서 세계부인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전세계의 여성의 문제로서 제안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일본보고4]

재판투쟁에 관한 보고

후쿠시마 미즈호 변호사

지금 일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사건'이라는 재판을 전개중입니다. 저는 이 재판의 변호사단 11명 중 한사람이며, 여기에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여성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본에서는 BC급 전범의 재판, 강제연행 당한 사람의 재판, 일본강관(鋼管) 등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 등 여러가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중군위안부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작년 12월 6일에 32명의 전 군인, 군속, 그 유족과 3 명의 전 중군위안부를 포함한 계 35명이 제소했습니다. 금년 4월 13일, 새로 6명의 중군위안부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1명, 그 중 9명이 전 중군위안부이며 전원이 한국거주의 한국인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2000만 엔을 일본국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재판입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필하고 싶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 '중군위안부 문제 행동 네트워크'나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 여러 단체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야자와 수상은 국가나 군의 관여를 인정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의 진행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제 1회 기일이 6월 1일이었는데, 가네다 기미고시가 일본 법정에서 처음으로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3명이 대표로서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2회는 기일이 9월 14일이고 3회가 12월 7일입니다. 각각 한 시간씩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재판에서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론도 있습니다만 재판관의 대응은 다른 사건에 비교하면 정중한 편입니다.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개토론의 장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를 법정에서 끌어내고 법적인 문제, 사실규명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군의 관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의 9월 14일에 일본 정부측이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 지가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아마도 법률상의 논점, 예를 들어 청구하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것, 이것은 변호단측에서는 인도에 대한 죄라는 뉴른 벨그 재판에서 사용된 죄명

과 원상회복 등의 근거조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정부는 직접적인 근거조문이 없다거나 일한조약으로 해결되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처음은 국가나 군의 관여를 부정했으나 점점 의견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사실규명을 해나가고 법정에서 법적으로도 정부를 추궁하고 싶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측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질문해 나가는 적극적인 재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고령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인 심문 등의 수속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중입니다.

사실은 재판을 시작할 때는 국가나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측에서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법적 문제, 구체적인 사실규명 등이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심포지움에 참가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9월 재판의 원고 속에는 중국, 라바울 등 여러 지역에 끌려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과 손을 잡고 여러가지 자료나 현지조사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손으로 자료나 청취작업을 하고 재판에서 정부가 종군위안부 정책을 실시한 경위를 발견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각국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변호단으로서는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8조 엔 보상하였고, 강제연행 등의 재판을 이긴 예도 많습니다. 또 미국, 캐나다에서는 강제수용한 일제인에 관해서 입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예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 속에서도 어떤 입법을 하는가,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법을 하는가, 또는 전후 보상법을 하는가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잘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너무나도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과 같은 것으로 일시불한 후 이것으로 끝내 버릴 위험성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재판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애매한 해결을 하지 않도록 재판에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만, 운동은 앞으로 반년 동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과 시민운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고 속에서도 명백하지만 매우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재판은 구체적 논점,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일본역사나 국가에 대해 못을 박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스컴이 크게 보도하거나 방청인이 몰려드는 등 관심이 높은 것이 재판의 내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이 이 심포지움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모였지만 일본여성들은 유일하게 가해자측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도 변화를 원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피해자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가해자의 시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전쟁도 미국과 전쟁을 했다는 식의 시점이 강했는데, 아시아와 어떤 전쟁을 해 왔는가 하는 과거의 역사를 발굴하여 현대의 문제로서 생각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십년 걸릴지 모르지만 끈질긴 넷 워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피고로 나서고, 역사의 문을 열어준 9명의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 국회에서의 활동 보고를 하고 있는 시미즈 스미코의원〉

일본 '우리 여성 네트워크' 의 입장 및 제안

박 운 남

저는 재일동포 여성들 중심으로 결성된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 의 한 사람인 박운남이라고 합니다. 재일 한국인 2세 입니다만 우리 조국 한국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료를 표합니다.

우리여성 네트워크는 1990년 말에 일본에 오신 윤정옥 선생님을 직접 만나빈 후 1991년 여름에 50 명의 재일동포 여성들이 다시 윤 선생님을 모시고 학습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을 깊이 함으로서 작년 11월에 여성네트 조직의 결성에 이르렀습니다. 약칭은 여성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경과 그 주변에 사는 동포여성 1세 부터 3세 까지 모여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붙인 것은 조국의 분단에 의한 극적과 입장의 차이를 초월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 네트워크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성 사회에 없는 여성이니까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시작한 것입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재일동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가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에는 70만이나 되는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시대에 강제연행 당한 사람들, 혹은 고향에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바다 건너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 2, 3세 들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땅에 태어나서 일본교육을 받은 우리가 민족적인 자각과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당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이 자기 주체성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연행, 강제노동, 징병, 징용,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야 말로 바로 나 자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참된 해결없이는 우리의 해방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이국 땅에서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낯은 관습,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과 혼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온존되어 왔습니다. 여성자신이 또 가치관에 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반세기동안 돌보지도 않았습시다만 이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여성의 시점으로 새로이 추궁함으로써 드디어 재일동포 여성들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네트워크는 결성 직후인 작년 12월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를 맞이하면서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동을 주었습니다. 집회에는 많은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참석했고 메스컴의 협력도 얻음으로써 여론을 크게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 각 단체들과 협력하여 행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통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난 시기 한국, 일본, 재일동포 여성들이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기생관광 반대운동 이후의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재판투쟁을 지원하며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동 등을 함께 해 왔습니다.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당시의 증언을 모으기 위해 위안부전화 110번을 개설했는데 예상을 훨씬 넘은 235 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증언들은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여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990년 10월 한국에 37개 여성단체가 밝힌 6개의 요구사항은 위안부문제 해결의 방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정부의 실태조사 보고가 있었지만 민간차원에서 진상규명한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네트워크도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로 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받아 쓰기 작업도 해 왔습니다. 여성 네트워크는 앞으로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상문제에 관하여 토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전시에 수용당한 일본계 미국인의 보상운동을 해 온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 2, 3세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큰 성과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네트워크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통 시민의 발상을 갖고 실제적이고도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시사를 받고 입법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자기나라의 근현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재일 동포가 존재하게 된 원인과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본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3, 4세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젊은 일본 사람들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자기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 등에 관한 사실이 현재 교과서보다 자세하게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데 기술 내용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 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중

군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넣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본 문부성과 교육위원회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요청하는 한편 보조 교제가 되는 책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시대가 말로 미래를 위해 과거를 올바르게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거를 바로 잡고 오늘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재일동포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서로 손 잡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재일 한국 민주여성회 보고

박 미진자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한국말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방청자 씨가 이 회의에 올 수 없어서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듣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참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 주변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조국의 분단과 대립 상황, 민족차별과 여성멸시, 가정억압과 차별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의 힘으로 타개하기 위해 1986년 "재일 한국 민주 여성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도쿄, 오사카, 도카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민주화와 조국통일, 재일동포의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여성해방의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와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윤간, 황군에 의한 집단강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잔인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여성차별문제의 차원을 넘어 일본 군국주의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유린한 문제입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거의가 강제연행 등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일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군위안부 문제는 우리들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들은 46년 동안이나 어둠속에 묻혀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종군위안

부 문제 자료집의 제 1, 2권을 발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활동을 거듭 전개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받음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민주화, 한사람 한사람이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함으로써 다국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평화스러운 아시아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회, 강연회, 집회를 열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 운동과 함께 지난 해 10월 별세한 배봉기 할머니의 추도집회를 한일 여성들의 하나된 힘으로 도쿄, 오사카에서 성공리에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 보상 요구 서명운동, 종군위안부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귀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피하던 일본정부가 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끈질긴 운동과 운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7월 6일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짓밟힌 종군위안부들의 피맺힌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전후보상 문제를 애매하게 매듭짓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고 우리 나라의 분단 고정화에 큰 역할을 한 한일조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재검토 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뿐만 아니라 군인, 군속 원폭피해자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모든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민중에게 자행한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정부가 과거 아시아에서 저지른 죄가에 대해 반성도 없이 PKO 협력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 놓은 데 대해 우리는 지난날의 침략전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죄나 보상은 자발적으로 행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여성회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NGO등의 의사 일정에 상정시켰으며 태평양 파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 소송지원과 모금활동도 일본의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건 시대의 피해국인 남과 북,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강력한 스크램을 짜고 우리들의 힘으로 진정한 해결을 쟁취합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고순자

안녕하세요. 오사카에서 온 고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2,3세 9명이 작년 5월에 만든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는 한국에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된 것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단지 식민지 나라의 딸이었다는 이유로 우리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것에 대해 이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국땅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차별당하고 여자로서 억압받고 있는 바로 우리 재일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집 발간, 서명운동, 연극공연, 현지답사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선 작년 8월 24일 여기 계시는 윤정옥 선생님을 모시고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를 맞이하여 우리 동포여성들이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와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부터 이미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낸 6가지 요구의 조기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강연 등 부르기만 하면 아무데나 나간 우리의 활동의 성과가 후쿠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각지에서 한 두장씩 보내온 서명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여기서 모은 4만명 가까운 서명을 지난 3월 31일에 일본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미즈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정부 담당자가 6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과 보상 대신 다른 형태로 사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안소가 있었다는 나라현 야나기모토 비행장과 다이토시에 남아있는 일한 간호부 위령비를 답사했습니다.

강제연행된 우리 동포의 손으로 1943년 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야나기모토 비행장에는 40명 정도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령비는 그 비를 세운 사람이 벌써 돌아 갔으므로 그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제 때 끌려간 우리 동포들의 발자취는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도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구성국을 만들어 도쿄, 오사카, 코베, 교토, 나라 등 열군 데서 공연했습니다.

이 연극은 종군위안부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신문기사, 강연 증언을 모아 자료집 1,2,3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료집 3은 전후보상 요구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것입니다.

금년 92년 7월, 일본정부는 조선인종군위안부에 관한 127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뿐인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상문제도 보상이 아니라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의 기금 형식으로 기만적인 해결을 도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기만적인 기금이 아니라 진정한 보상과, 국내외에 있는 자료,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 등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일본의 세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만난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연대회의에 부치는 서신

“2차 대전중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성 ‘위안부’와 쿠웨이트에서 덮에 걸려, 강간당한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연대 활동에 대하여”

경애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폭력 사례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대활동을 위하여 이 서한을 보냅니다.

아시아 여성 인권위는 범 아시아 여성 조직으로서, 아시아 여성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인권에 대한 발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2년 5월 28일, 필리핀 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 여성들과 쿠웨이트에 상주하고 있는 동안 덮에 걸려 강간당한 아시아의 근로 여성들을 위하여, 특히 아시아 여성 위안부들을 위하여 진상규명을 청하는 연대 활동을 건 아시아 차원에서 모색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AWHRC 사무국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A. 2차 대전중 아시아의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

“위안부”라는 용어는, 2차대전 중에 일본제국 군대를 위해 강제로 성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을 지칭한다. 발굴된 문서와 채집된 구두 증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은 팔려서, 속아서, 혹은 유괴되거나, 강제로 징집되어 당시 일본이 점령한 지역과 일제 식민지의 각 “위안소”로 수송됐다.

20만으로 추산되는 “위안부” 가운데, 한국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992. 7. 6.) 일본 정부는 한국,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일본까지 포함) 국적의 “위안부”에 대한 존재사실을 시인했다.

여성 단체들은, 2000-3000명 가량의 대만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마닐라, 싱가포르, 말라카스로 배치되었던 반면, 최소한 19명의 필리핀 여성이 “위안부”로 징집되었던 사실이 명시된 문서를 확보하였다.

한국의 6인 “위안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쟁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40년간 부인해 온 일본정부는 일본제국 군대가 위안소를 만들고 거기서 매춘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카도모(Koichi Kato) 정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사과의 말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위안부로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던 그들 모두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우리 운동의 목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만행성과 인권 침해 사실을 뚜렷이 밝혀내고,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한 원조 및 일본의 사죄와 배상 청구를 끝

어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필리핀, 대만, 중국 등 아시아의 위안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며, 2차 대전 이후로 재등장하고 있는 일본의 해외 파병을 용인하는 PKO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2차대전 중 한국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종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서명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이 “호소문”은 모든 인권 단체로 각각 배포되고, 일본 정부와 UN 사무총장, UN 인권위원회 그리고 아시아 각국 정부 및 그 외 관련 단체들에게 발송될 것이다.

B. 쿠웨이트에서 미끼에 걸려 강간당한 아시아 근로 여성을 위한 연대 활동
금년 초,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의 아시아 근로 여성 331 명은, 쿠웨이트 고용주의 학대와 잔혹성에서 탈출하여 쿠웨이트 주재 각 대사관에 피신을 청했다. 그 여성들은 자신들이 짐승처럼 짓밟히고 학대받고, 고용주의 함정에 빠지거나 강간당했으며, 따라서 그들 각자의 대사관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수 많은 아시아의 여성들은 家內 使用人으로서 쿠웨이트의 노동력을 충당하여 왔다. 많은 여성들이 바레인, 카타르의 일을 약속 받았으나, 쿠웨이트로 대신 보내졌다. 필리핀에서는 1989년 이후, 쿠웨이트의 근로배치가 금지되었지만, 아직까지 다수 필리핀인이 쿠웨이트에 남아 있다.

쿠웨이트의 S.S.N. 알 사바 대사는, 그 사실이 한낱 단순한 집안문제였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쿠웨이트 관리들은 또한 그 사태의 심각성을 한사코 부인하며, 그 여성들을 거짓말장미로 몰아부쳤다.

우리 운동은, 아시아의 가내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환과 아시아 각 정부의 수사 착수, 그리고 수천명 쿠웨이트내 아시아 근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요구한다. 또, 쿠웨이트는 아시아 나라들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제 인권 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의 연대 활동을 위한 아시아 운동의 또 다른 목표는, 아시아 여성 인권의 더 나은 보호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희생된 여성과 생존자들을 위한 민족적, 국제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1991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AWHRC 회의에서 일찍이 제안된 바대로, 여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정심판을 우리 운동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시아 종군 위안부와 쿠웨이트의 근로 여성들 그리고 기타 여성폭력 사례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널리 알리며, 더 나아가 활동에 분명이 나설 것,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정부와 국제단체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대응방침을 세우기를 희망한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호소문 서명지는 1992년 8월 25일 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1099, 사서함 190호 AWHRC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리핀 "위안부"문제에 관한 첫 보고서

넬리아 산초(일로이로의 가브리엘라)

아시아 여성 인권위원회(AWHRC)가 제출한 보고서와 일본정부가 필리핀 점령중 위안부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에 고무된 가브리엘라는, 민족협의회(NC)의 6월 회합에서 필리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에 경각된 가브리엘라의 일로이로 지부는 조사연구 활동을 요청받았다.

위안부 문제와 일로이로의 가브리엘라가 조사연구 작업에 참여할 방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제 관계 부서의 가브리엘라와 일로이로 지역의 가브리엘라, AWHRC의 사무원 한 명이 참석한 회합이 개최되었다. 그들은 조사된 사실에 대한 첫 보고서를 1992년 7월 말에 발송하기로 합의하였다. 7월31일, 국제관계부서 가브리엘라의 조정원이, 일로이로의 가브리엘라가 최초로 접했던 사람과의 개인적 면담을 위해 떠났다.

조사내용:

기본적으로, 조사연구의 목적은, 바로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위안부의 실상을 목격한 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들은 위안부 자신 일 수도, 혹은 친구, 친척, 관리, 경찰일 수도 있으며 또 그 외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단체가 취했던 첫 시도는, 그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과 교제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주로 그 지역의 노년층과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일본인의 필리핀 점령을 목격하고 그 당시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조직 단체들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단체 사람들에게 前위안부였던 여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파악여부를 물었다. 파나이(Panay) 교원 관련자 연맹(PACT)의 한 성원이,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 동안 캠페타이(Kempetai)였던 일본인을 알고 있다고 전해 왔다. 그는 필리핀식 이름을 갖고 있던 자로, 노닝 산틸란(Noning Santillan)이란 사람이다.

일로이로의 가브리엘라 조사원이 캠페타이를 세 번 찾아갔으나, 그는 그 주변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원들은 캠페타이가 가브리엘라 사무실로 접견방문이 가능하다는 쪽지를 남겼다. 그 뒤 캠페타이는 사무실을 찾아왔고 가브리엘라 측은 그와 면담할 수 있었다. 산틸란은 일본점령 당시에 살았던 일본인이 제공한 지도를 보이며 바로 그 곳에 위안소가 있었음을 확신했으며, 또 당시 일본군인이 현용했던 어떤 '파리 호텔'이 일로이로의 성(性) 델라 라마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원은 '리잘'에 사는 노년 여성들로부터 증언을 받아왔다. 마침내 새로운 곳에서 적합한 증인을 만난 것이다. 일본 점령 당시 9세였던 '리잘' 출신의 콘시타 디스터는, 위안부로 여겨지는 한 여성을 알고 있으나, 그녀의 생존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 여성을 바콜로드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그곳은 디스터가 戰時에 일로이로에 정착하기 전에 떠났던 지방이었다.

'리잘' 출신의 나나미 암파로 림(Nanay Amparo Lim)은 또 밤 9시에는 남자와 여자들을 싣고 파리 호텔로 가는 트럭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일로이로의 변두리 지역에서 보내졌으리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여성의 주검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한, 성(聖)델라 라마에 삼엄한 경비가 세워졌던 거리는 온통 일본인에게만 독점되었으며, 그곳에 대만과 한국 여성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당시 일로이로에서 한 때 일명 G-2로서 첩보활동을 했던 87세의 노인 호세(Jose Soncio)씨 또한 델라 라마거리에 파리 호텔과 위안소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그도 역시 그 거리가 일본인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일본 제국군대가 의학검사용으로 보낸 14명의 대만 여성들을 알고 있으며, 현재의 생존여부는 알 수 없지만 카피츠 출신의 20세 위안부 로지타(Rosita)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우리는 또한 그 당시 또 다른 G-2첩보원이었던 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콘시타 디스터에게 마닐라를 다음 조사 대상지로 소개받았다. 우리가 비록 세번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라도 우리는 장래에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필리핀 보고서

필리핀, 아시아 여성 인권위원회 마공 알리안상 마카바이안(BAYAN)

- 정신대 문제 여성단체(Woman's Desk)와 위안부 대책회의 -

1. 序: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기 위하여 아시아 집회에 출석하신 우리 한국 자매분들과 아시아 각국 자매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필리핀 여성대표단을 대신하여, 이 회의에 초대해 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이하 한정대협)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이 문제는,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족적·지역적 수준에서,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 단체 차원의 대응이 촉구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진보 운동단체 여성들은, 현재 라모스(Fidel Ramos)장군의 보호아래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한 강고한 대열 형성을 이끌고, 필리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민족운동으로 세워낼 것을 촉구하는 강연을 주도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우리 필리핀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시아 여성 인권위(이하 AWHRC)-아시아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범아시아 민간 여성조직-가 1991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주최한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에 관한 <아시아 회의>에서였다. 당시 우리 모두의 관심은 고통과 한을 딛고 일어나 참석하신 세 분의 한국 여성에게로 모아졌다. 그 분들은 자신의 삶의 이력을 이야기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성 제공을 위해 강제동원했던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자매들은 7만에서 20만까지 헤아리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 성적 노예화를 강요받고 아시아의 여러 점령국들로 배치되었음을 폭로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 제국군대는 미군이 주둔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폭격한 후 필리핀을 점령하였다. 유럽지역에서 개전되고 당시만 해도 유럽에 한정되었던 2차 대전은, 이렇듯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에 합류함으로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1941년과 1945년 사이 일본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리핀 민중은 지방 게릴라군의 강력한 저항운동과 필리핀 군대의 연합국동맹 덕분에 식민지화는 모면했다.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포함해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만행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학교 교과서에도 어떤 역사책에도 '위안부'는 거론되어 있지 않다.

1992년 3월 10일, 한 필리핀 일간지는, 2차대전 중의 위안부 수천 명수에 필리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아시아인들로는 중국, 대만, 보르네오가 있으며 또 공화국은 남필리핀 중앙섬에 있는 일로이로시(Iloilo)에서 19인의 필리핀 위안부가 명시된 문서를 발견했다. '히데코의 일본 식이요법(Hideko Itoh of Japan's Diet)'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일본 병사들의 성병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19 필리핀 여성들을 검진한 일본인 의사의 의로 보고서이다. 그 문서에는 19명 가운데 17명의 이름이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성 사무단체(WD)의 BAYAN이, 일본군대에 징집된 '성 노예' 가운데 필리핀 사람이 존재했다는 보도에 최초로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의장 넬리아(Nelia Sancho)를 통해서 필리핀 정부-코라손 아키노 정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요지로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요컨대, 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벌일 것, 필리핀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공식적 항의를 제출할 것, 피해 여성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은 "위안부"중에 필리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문제가 일본의 아시아국 지배와 제국주의의 압제, 성 문제, 인종, 민족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하루 20-30회, 주 60회의 성 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강간과 능욕의 연속이며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저절한 인권 침해이다. 이는 남성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여성이 어떻게 성 소모품으로 전락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혹독한 형태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목도하

고 있다. 즉, 우편주문 신부, 청부 겁대, 성 관광, 상습적인 아내구타, 강간, 軍의 집단적 매음, 도색잡지·영화, 종교적 관례로서의 여성교환과 매음 등. 우리나라에는, 일본 남자와 세부와 마닐라의 파렴치한 여행업자들에 의해 조직되어 행해지는 성관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현혹되어 간 필리핀의 많은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겁대부, 혹은 Japayukis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문서화된 것으로, 야쿠자와 같은 거대 폭력단과 포주의 수중에서 미공의 죽음을 당한 이도 있다.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제3 세계 나라와 산업 선진국 간의 불평등한 교역관계는 반드시 가난과 성적 억압을 낳는다.

일본이, 필리핀과 같은 가부장 사회에서 위안부를 전시동원했던 만행은, 군국주의가 식민지 여성과 식민지 아시아 민중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전락시키고, 능욕하고, 착취하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실례이다.

동서진영의 냉전 종식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경제력의 엄청난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전지구적 방위에서, 특히 아·태 지역에서 과거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목격한다.

반세기 가 지나고 처음으로, 다시 일본정부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지난 6월, 자민당으로 하여금 위험적 UN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을 강제 통과시킴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기도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서도 영구 의석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아시아지역 여성들, 특히 능욕당하고 짐승처럼 혹사 당했던 위안부의 그 깊고 처절한 고통과 한과 분노를 함께 하기위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저지른 전쟁과 군국주의가 여성에게 남긴 그 끔찍한 흔적들을 매우 똑똑하게 보고있다. 우리의 이러한 공감은, 군국주의와 그로 인한 여성의 성적 학대와 착취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연대책임 의식으로 발견해야 한다. 우리 필리핀 여성들은, 정치·군사상의 세계적 영향력 확보를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 PKO법안과 미-일 군사동맹은 아·태 지역에서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선언인 것이다.

2. "중군 위안부": 필리핀 사례

한 일본 군의관이 Kompei-tai에 제출한 1942년 3월 19일자 의로보고서에는 일로이로 소재 "위안소" 혹은 위안소 겸용 군건물의 위치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사실은 그 도시 뿐만 아니라 근방 마을에 사는 노년층 여성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BAYAN은 3월 13일자 신문에, 필리핀 여성과 다른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적 능욕행위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조사활동과 희생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정부가 일본당국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을 기대했다. 이 요구는 필리핀 코리 아키노 정부를 자극했다. 정

부는 BAYAN에게 증거제시를 도전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로써 증거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생존자 수색작업 등이 민간 조직에게로 넘겨졌다.

1992년 5월 4일, BAYAN과 AWHRC 여성들은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아시아 여성의 중군위안부 강제징집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해명 요구서한을 일본대사에 제출하였다.

다음 날, 필리핀 정부(아키노 행정부)는 필리핀 대학의 수완중은 교수 리카르도 호세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직속 인권 담당부서의 이름을 걸고, 자체 “조사보고”를 발표하였다. 호세 교수는 2차 대전에 관련한 필리핀과 일본당국의 문서를 기초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필리핀에 “위안부”도, 매음이 강요된 사실도 없었다는 결론을 성급히 내렸다. 하여 1992년 6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그 보고에 의거하여 필리핀에는 성 제공을 강요받은 여성이 없었고 따라서 사죄와 배상은 거론할 필요도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자극된 민간 단체들은 스스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을 조직했고, WD는 BAYAN과 GABRIELLA의 일로이로 지부에 현장조사를 청탁하였으며, 가브리엘라 민족여성 연합에게도 각 지방의 현장조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위안부가 있다고 조사된 일로이로의 마을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서, 일본군을 위해 첩보 노릇을 했던 한 필리핀 농부는 “위안소” 군용건물이 실제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가 알고있던 한 위안부가 수 년 전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1992년 6월 6일, 일본정부는 일본제국 군대와외의 직접 관련사실을 시인하고 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위안부”가 징집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27개의 문서를 근거로 강제로 행해진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어쨌든 2차 대전중 필리핀 여성의 위안부 존재를 일본이 시인함으로써, 필리핀 정부가 성급하게 내린 부인 진술은 부정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관련 피해자를 대신한 어떠한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필리핀 여성 단체들과 민중운동 단체는 1992년 9월 25일, 차지 대통령 라모스 장군에게 필리핀 위안부를 돕기위한 진지하고 결정적인 응답(조치)을 얻어내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다. 남한, 중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 각국의 정부는 대부분 자국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최근에, 한 일본 관리는 오르모그지방, 크루즈역, 마스바트, 그리고 카가이안 지방에서 위안부 존재의 가능성을 밝혔다. 한 일본 신문은 또한 필리핀 내에 만들어진 위안소 새 곳을 지적한 바 있고, 마닐라와 타클로반 그리고 일로이로 지방으로 밝혀졌다. 또 그 신문은, 타클로반에서 발견된 1943년 8월 보고서에 일본 제국군이 9명의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보도했다. 다른 지역으로 안티크, 민도르, 네그로스과 카가이안 계곡이 추가 보도되었다.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고된 뒤, BAYAN측과 AWHRC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여성단체들이 결집되었고 항의가 계속되었다. 가브리엘라, 바티스, 칼

라이언과 그 외 다른 여성단체들은, 필리핀과 아시아 위안부에 대한 반인륜적 잔혹행위를 고발하고, 정위를 위하여, 일본 PKO 법안의 철폐 및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AWHRC가 시작한 서명운동에 속속 동참하였다.

필리핀 AWHRC는 필리핀 여성단체들 가운데서 특별임무에 주력할 세력을 소집했는데, 우리는 이를 <중군위안부를 위한 대책회의(Task Force for Women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혹은 위안부 대책회의(TF - Filipina Comfort Women)로 부르고 있으며 7월 13일에 완성되었다. BAYAN, WD, 가브리엘라 여성폭력 대책위원, 칸툰간 중앙재단, 바티스 여성센터, 가브리엘라 국제연대 담당원, 여성 법률국, 필리핀 민족교회 협의회 인권 담당국원으로 구성되었다. TF-CW는 필리핀 여성단체들의 조사, 연구, 법률활동, 로비활동, 선전대체 확보, 교육, 국제연대 등의 일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일본은 필리핀 국민과 특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2) 희생자와 유족을 보상하라 (3) 필리핀 정부는 희생 관련자들에게 대한 실제적 위안 대책을 마련하고 확고한 자세로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하라 (4) 역사에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성의 인권 침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일본의 온갖 전쟁만행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라 (5) UN 인권위는 한국 여성의 진상규명 요청을 지지하고 일본의 인권 침해와 정보봉쇄를 견책하라 (6) 일본정부는 그들이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여 위안부를 유지했음을 인정하라;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성만큼은 부인했다 (7) 생존한 필리핀 위안부가 일종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라

당면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임무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질타하고 ‘생존 위안부’를 찾아내 원조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확고한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민족간 적대를 앞장서서 조정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머물거리고 있다고 여긴다.

AWHRC 종교분과는, 7월 아시아 각국에 한국과 여타 아시아 각국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활동 호소문을 보냈다. 이 호소문은 아시아 모든 조직과 국제적 주요 거점단체에 전달되었다.

3. 우리의 당면 활동 계획

A. 금년 9월 마지막 주, 필리핀 AWHRC 산하 TF-CW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시위를 계획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생존자 수색에 대한 보조를 얻어내고, 필리핀 희생자의 후생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표명케 한다.

이 집회는, 남한, 북한, 중국, 대만 정부가 취했던 확고한 태도를 우리 정부가 취할 때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 밀고나가야 할 우리 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그렇게하지 않는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우리 필리핀 국민은 의혹을 품는다: 어째서 라모스 정권은 우리가 당한 인권 침해의 정의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현 정권의 무사한 집권을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정부가 필리핀 여성의 존엄과 명예, 복지 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일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통치는 불허되어야 한다.

B. 생존 "위안부"를 찾기 위한 수색과 조사계획 현장조사는 일로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내주 안으로, 우리는 레이테, 안티크, 마닐라에서 생존자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병원, 마을 진료소, 경찰, 군 주둔지 주민과 지방 사가들과 또한 면담을 나누고 증언을 수집할 것이다. 근방의 마을 혹은 barangays는 필요시 추가 방문할 것이며, 생존자 수색을 요청하는 라디오 방송 중계도 추진할 것이다.

C. 교육과 선전을 위해 다른 수단과 매체도 활용한다.

9월 8일, 2차대전 중의 아시아 위안부 문제를 위한 <아시아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필리핀 AWHRC 주관 아래 추진한다. 여성단체는, 여성 기고가나 작가, 그외 언론 종사자들과 연계하여 매체 선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며, 그 홍보물은 필리핀 내 모든 민간 조직과 단체에 배포될 것이다.

D. 집단 행동 조직화: 기동부대는 기층 민간 조직들과 함께 추가 조사지로 설정된 10개의 단위 지역에 따라 공동 행동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생존자들을 돌본다. 이 위원회는 이 여성 단체들과 민중조직의 위안부 대책 마련 운동에 대한 지방 활동을 조직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설정한다.

E. 지방 라디오 방송 중계

기동부대는 지방의 NGO와 함께 10대 조사설정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하며 지방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존자 수색을 위한 면담과 회견 활동을 주 3회 실시한다. 일로이로에서는 가브리엘라가 작성한 여성 방송 프로그가 타진될 것이다.

생존자, 목격자, 그리고 그외 정보 제공 가능자가 있는 각 지역에 직통 전화를 설치한다. 우리는 또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기금 모금 활동을 벌인다.

우리는 한국 자매들에게, 특히 우리로 하여금 활동의 영감을 불어넣어 준 "위안부"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든 지지자에게 진심으로 깊은 연대감을 전한다. 우리는 모든 중군 위안부의 정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와 미국 및 그외 강대국들의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끝날 때까지 이 운동의 지속을 다짐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지위 향상기도 종단을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 그리고 모든 평화 옹호자들은 전쟁과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를 반대하며, 반드시 인류 정의의 새로운 기치가 내걸리고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가 깃들 세상을 희망한다.

아시아 여성 인권 위원회
- 필리핀 지부 -

일본 제국주의의 군 "위안소"는 아시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다.

필리핀 여성 단체들은 전쟁중 필리핀 여성에 대한 매춘강제를 항의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시아 여성 인권 위원회로 결집하였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그 병사들이 20만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특히 한국, 필리핀, 중국, 대만 여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을 고발한다.

우리는 아시아 여성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위안부 경험에 대해 필리핀 여성과 그외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지독한 혐오를 공감한다. 우리는, 일본병사들이 제국군대의 한 체계로서 소위 "위안소"라 불리웠던 매춘여인숙에서, 하루 20-30 회씩(주 60회) 성 제공을 강요한 사실을, 여성을 성 소모품으로 여기며 일삼아 온 연속적 강간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중군위안부의 전시 동원 사실은, 전쟁과 군국주의가 식민지 여성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전락시키고, 능욕하고, 착취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실례이다.

우리는, 위안부가 존재했던 아시아 각국의 해당 정부가 일본제국 군대의 엄연한 전쟁 관행을 단죄할 것과 아울러 일본을 상대로 희생 여성에 대한 보상과 공식적 사죄를 요구함으로써, 희생자들이 염원하는 '정의 추구'에 지지·동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한국 여성은, 자신들이 겪은 성 침탈 만행에 대한 사회의 침묵과 수치심으로 괴로와하던 긴 세월 끝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용기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고 아울러 깊은 경의를 표한다.

* 작성자 : 넬리아 산초(Nelia Sancho)- AWHRC 조정관,
양니에 라이야도르(Jeannie Layador) - AWHRC 기획원

대만 "위안부"에 관한 첫 보고서

메이 링 켄

대북시 부녀 구원 사회복지사업 기금회

1. 序

2차 세계대전 동안, 동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인을 상대로 매음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위안부", 혹은 "군부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책에서 "위안부"문제를 시인하고 있다. 일본의 군부대와 정부 또한 그들의 매춘행위 강요 사실을 자인하였다.

1992년 2월, 일본 정부의 야당이 일본 국립 도서관에서 대만에 위안부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3개의 비망록을 발견했다. TWRF는 위안부 행위를 강요받았던 대만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직통전화를 가설하였다. 이어 이 문제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기획국장 안토니 C.F. 왕은 일본과 한국을 다녀와서 정보들을 가지고 왔다. 1992년 3월 12일, 중앙정부에서 "위안부"를 위한 직통전화를 가설하고 이 문제를 다룰 "대만 위안부 대책모임(TCWMT)"을 구성하였다.

TWRF가 TCWMT산하로 포괄되어 진상규명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계획의 첫 사업은 직통전화에 걸려온 전화 내용을 접수하는 것으로, 1992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보고서는, TCWMT가 이 기간에 접수된 내용들과 별도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하의 분석은 "위안부"를 감당하면서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2. 분석

직통전화로 전해 온 여성들의 경험, 고통의 사정, 치유방법들은 각각 달랐다. 친구나 친지들이 전화를 걸 경우, 아직 생존해 있다면 우리 TCWMT는 과거의 위안부 당사자를 불러낼 수 있다. 또 만일 그녀가 현재 대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녀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그녀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 그녀와 면담할 수 있다. 때때로 위안부 스스로가 직접 TCWMT에 직통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위안부 혹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일본에 군간호원으로 갔던 대만 여성에 대한 분석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92년 3월부터 6월까지, 13가지의 사례들을 찾아 조사하였다.

3. 진상조사 방법

우리의 실태조사는 편의상 의뢰인의 구술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면담자료 혹은 전화상담 자료에 의거하였다.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들의 가정집이나 그 외 신변 안전의 보장이 가능한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출생일, 가족사항, 직업 등의 신상기록이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친척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한 여성에게서 위안부가 되었던 경로까지 전해들게 되었다. 상담자는 그녀가 군부대나 그 주변에서 생활했는지의 여부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현재의 생활상과 건강, 직업, 사회생활들에 대해서 질문했으며, 직통전화 방법이 어떠한가 그리고 일본인과 일본 정부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부 당국이 "위안부"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우리 TWRF는 의뢰인의 위안부 시절이 현재 직업과 가정에서의 생활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려 하며, 그들이 어떻게 "군부대 여성"이 되었는가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느낌과 기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와같은 다섯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의뢰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들을 진단하고자 한다.

4. 가족과 직업의 배경에 대한 분석

대만의 "위안부"는 대체로 매우 비슷한 생활배경을 가지고 있다.

[1] 가족 배경(출신 배경)

(1) 극빈층

그 부모들은 농민(제1, 11 의뢰인의 경우)이거나, 어민(#9), 노동자(#13), 배우(#7), 환경 과학자(#3)이다. 그들의 생업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제 2,3,4,6,8, 의뢰인의 경우는 어릴 때 고아가 되었다. 가족의 가난과 조실부모는 많은 위안부들에게 공통적이다.

(2) 양녀 혹은 민머느리

가난한 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녀로(#4,6,7,11), 민머느리로 다른 집에 보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종종 양부모에게 팔려가기도 했다.(#2,6,7,12)

[2] 가정 상황

(1)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가난했던 이유로, 그 여성들은 가계를 보조하거나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 가장 노릇을 해야했다.(#6,12) 어떤 여성은 친척에게 입적되었고(#4,10) 이 경우는 가족으로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또 다른 여성들은 여러 차례 팔려 다녔으며(#2,7,12), 강간 당한 후 집과 학교를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였다.(#8,11) 그들의 가정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가족들과의 접촉도 드물었다.

위의 두 사실로는, 그 가족적 배경이 그 여성들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는지 혹은 미미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결정이 어렵다.

[3] 직업 상황

- (1) 이 여성들은 호텔 직원으로, 술집으로, 찻집으로 건전하며 일했고, 이들이 매춘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와는 상관없이 쉽게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받았다. 실제로, 조사된 여성의 70%가 이런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 (2) 병원에서조차, 간호원들 또한 성 제공을 강요받고 있다. (#1, 5)

5. 그 여성들은 어떻게 유인되었는가

[1] 여성들은 어떻게 '성 접대부'로 유인되었는가

- (1) 속아서 접대부가 된 여성 (#1, 6, 7, 8, 9, 12, 13). 다시 세 부류로 나누면,
 - A. 거짓말에 속아서 (#6, 8, 9, 12)
 - B. 사기당한 후 강제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더 나은 병원근의 미끼에 걸려 일본의 남자 간호사들에 의해 강제로 당한 경우 (#1).
 - C. 사기당한 후 팔려서. 강제유인을 목적으로 대만에 건너온 일본군인들에게 당한 경우 (#7). 일본군인들은 그 여성들에게 좋은 술집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속인 후, 일본군을 상대로 성 접대를 강요했다 (#7, 13).
- (2) 강제로 위안부가 된 여성: '홍등가'와 같은 어떤 지역에서는 유괴된 후 강제로 위안부가 된 경우도 있다.

[2] 유인 미끼(근거)

- (1) 일본군이 여성들에게 술집과 클럽의 여급/여주인으로 (#4, 7, 12) 혹은 매춘부 (#10, 11, 13)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경우
- (2) 일본군이 병원 근무자 모집으로 위장한 경우 (#1, 5, 6, 8)
- (3) 일본군이 요리사 모집으로 위장한 경우 (#9)

[3] 그 여성들이 가려고 했던 이유: 강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3가지로 분류된다.

- (1) 돈을 벌기 위해 (#10)
- (2) 외국에 나가보기 위해 (#6, 10)
- (3) 대만을 떠나고 싶어서 (#13)

[4] 총 인원수

익명인들은 강제로 접대부일을 한 반면에,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많은 대만 여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180에서 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5] 연령: 18-25세 사이의 여성들이 유인됨
- [6] 관련자: 대만인, 일본인에 의해 끌려감 (#1, 2, 5, 6, 7, 9, 12, 13)
- [7] 유인장소: 타이베이 (#1, 4, 7, 10, 11, 13); 신추 (#5, 9), 남투 (#2), 평둥 (#6, 8).

[8] 계약서 작성: 그 여성들은 어떤 은밀한 포주와 대만에서 계약을 맺고 떠났는데, 어떤 여성들의 경우는 취업 후 돌려받기로 하고 100-500 NT\$를 지불했다.

[9] 출항지: 카오스홍 (#4, 7, 8, 9, 10, 11, 12, 13), 키일롱 (#1, 2, 3, 5)

6. 성 접대부

[1] 특징: 대체로,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접대부가 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8명의 여성이 드러났다 (#1, 3, 6, 7, 8, 9, 12, 13).

[2] 장소

중국 동남해안의 하이난 섬으로 (#1, 6, 7, 8, 9, 13), 필리핀으로 (#2, 4, 10, 11, 12), 상하이와 구안추 지방에서 중국으로 (#3, 5, 9), 인도네시아 (#11)로, 말레이시아 (#3), 소 리우 치우섬 (#2)으로 보내졌다.

[3] 접대부 정주지

- (1) 군부대 (#2, 3, 6, 7, 8, 9, 13)
- (2) 군부대 근처 (#3, 6.)
- (3) 부대 밖의 은밀한 집이나 근무처 (#4, 5, 10, 11, 12)

[4] 접대 행위 장소

- (1) 군부대 안에 가구 한점없이 나무칸막이가 설치된특별장소 (#2, 3, 6, 7, 8, 9, 13)
- (2) 접대부가 적을 두고 있는 술집 (#4, 5, 12).
- (3) 주방과 접견실이 있는 장교 클럽 (#10, 11)

[5] 경영 관리

- (1) 일본 군대 내에서 군인들이 (#2, 3, 6, 7, 8, 9, 13).
- (2) 기타.

A. 대만과 일본의 술집 혹은 매춘영업소 포주 (#4, 10, 11, 12)

B. 확실치는 않지만 대만인이 독자적으로 (#5). 그 대만인과 일본군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일본군인과, 장교, 대만 군인 모두가 고객이었다 (#4, 10, 11, 12)

[6] 일일 접대 횟수

그 여성들은 하루 평균 3-20인을 상대했고 (#1, 6, 7, 8, 12), 어떤 밤에는 60장의 티켓(이는 60명의 고객 상대를 의미한다)을 모으기도 했다 (#7).

[7] 시간

최단 3분 (#7)에서 최장 밤샘까지 성의 접대시간은 매우 다양했고, 장교들만이 밤시간 전체를 독차지 했다.

[8] 운영 방식

- (1) 시간대는 다양했고 일정 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병사들은 티켓을 구매하

고 나서 줄을 서 기다렸다. 티켓마다 요금이 달랐는데, 병사들을 배려한 요금은 1-2 NT\$사이였고 장교가 지불했던 요금은 3NT\$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3). 티켓 구매 후 장교와 병사들은 그들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고, 대부분 사쿠라 불리는 콘돔을 착용하였다(#4,6,7,10,12,13)

(2) 상급장교에게는 더욱 긴 시간이 할당되었다. 그 여성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장교들의 '여자친구'가 되었고, 곧 다른 장교들에게 넘겨졌다(#10).

[9] 단골 고객

일본 병사와 장교들, 그리고 대만 병사와 장교(#3,4,5,7,8). 하이난 섬에서는, 대만 병사들만이 단골 고객이었다(#7,13).

[10] 건강과 성병(STD)

모든 접대부는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다. 어떤 여성은 주 1회(#3, 4, 5, 7, 8), 또 어떤 여성은 2주 1회(#12), 또 매월 1회(#2)의 검진을 받았다. 병사들에게는 빠짐없이 콘돔착용이 요구되고, 자주 의료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여성은 없었다.

[11] 비인간적 대우

대체로 대만 여성은 매력적이고 순종적이었다는 이유로, 일본 병사들은 그녀들을 즐겨 찾았다(#5,10,11,12,13). 만일 대만 여성들이 반항했을 경우에는 지독한 욕을 먹거나(#6,7,13), 얻어 맞았을 것이다(#8). 임신한 여성도 있었는데, 임신부일지라도 7 내지 8개월까지는 일을 해야 했고 그 뒤 잠깐동안 쉬 수 있었으며, 출산 직후, 성 접대일은 계속되었다(#3). 게다가, 일본 병사들에게 접대여성들의 구혼은 금지되었으며, 그렇게 했던 경우, 심한 죄값을 치루어야 했다(#9).

[12] 접대 여성의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과 정서

개개인의 대답은 다양했고, 가장 일반적인 대답들은 아래와 같다.

(1) 두려움. 강한 공포감이 우선이었다. 새로운 곳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재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며, 매춘행위 자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으며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 속에 있었다(#6,8,9,12). 접대부가 되면서 처음으로 "성"을 경험한 여성(#6,12)도 있었는데, 이 두 여성의 경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실례로, 한 여성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이밀어지는 위협을 당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6,8,9).

(2) 고통

이 여성들의 깊은 고통은 강요된 성 접대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6,8,9).

(3) 분노

그들은 친구와 가족들과 멀리 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도의 착탄에 빠져 있었다(#6,8,9). 또 빈번한 착탄상태로 인해 종종 의식을 잃고는 했다(#8).

(4) 외로움

그 여성들은 낯선 땅에서 고립감을 느꼈고, 친구도 만날 수 없었다. 그들은 곧 대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서로 나누며 위안을 얻고 외로움을 덜곤 하였다(#6,9).

(5) 저항

그들은 성 접대 행위를 원치 않았으므로 때론 저항하기도 했다(#6,7,8,13).

(6) 자책과 순종

처음 시작 때는 공포에 떨고 모든게 뒤죽박죽이었고 외로웠다. 잠시 후,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일에 순종하고 자신을 책망하였다. 한 여성이 탈출하기를 바랬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거나 차라리 죽음을 각오한 경우일 것이다. 분노한다 해도 그녀는 구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1,8,9,13). 대만에서 접대일을 하게 되었다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일을 꺼렸다. 게다가 일본 군부대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나 고객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도리 없이 일본군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7,13).

[13] 통제 범위

(1) 그녀가 일본군의 통제를 직접 받고 있었을 경우라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조금도 손 댈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3,6,8,9).

(2) 하이난 섬 기지에서, 그 여성들은 낮동안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나, 밤에는 꼼짝없이 갇혀 일해야 했다(#7,13).

(3) 일본군의 직접 통제 밖에 있는 곳에서, 그 여성들은 더욱 자유로웠다(#4,10,11,12).

[14] 억류 기한

그 여성들은 7개월부터 길게는 6년까지 성 접대를 강요받으며 지냈다(#1,2,3,4,5,6,8,9,12,13). 이 중 두 여성이 6년동안 억류되었다(#8,9).

[15] "접대부"생활 중단이 가능했던 이유들

(1) 상대 일본군이 길을 잃어서, 대만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진 여성과 탈출한 여성(#1,12,13).

(2)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일한 후 풀려난 여성(#4).

(3) 병이 들어 풀려난 여성(#5), 억류지에 있던 대만 병사가 친척이어서 도망쳐 나온 여성(#7), "접대부"로 갔다가 읽고 쓰는 능력 때문에 경리업무를 보게 되었던 여성(#8) 등의 개인적인 변고들에 의한 경우가 있다.

7. 접대부 강요가 그들의 정서에 끼친 영향

성 제공 강요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고통을 심었다. 그녀는 독특한 감정들을 체험하고 있다.

[1] 결혼 상태

결혼은 하였지만 불행했다. 때때로 누군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있다(#2,4,5,6,10). 결혼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도박 등의 고약한 버릇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7,8). 접대부 경력자는 2내지 5번 정도 재혼하게 되었다(#1,3,9). 조사 여성 가운데 단지 두 명의 여성이 무사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이 결혼의 한 경우는, 남자 역시 가난하여 함께 결혼비용을 벌어야 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접대부 시절의 경험을 추궁하지 않으며,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있다(#12). 또 다른 경우엔, 남편이 아내의 접대부 경험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이유 때문에 결혼이 유지되고 있다(#13).

[2] 취업

그들은 대만으로 귀환하여, 가족을 위해 가사를 돌보거나, 노동을 하고 있다(#2,6,7,8,9,13). 강제 해직을 당해 일을 중단한 적이 있다(#2,5,6,8,9,12).

[3] 생계

그들은 대만 귀환 후, 일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어려워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다. 이 당시 혼자서 외롭게 생활했고 지금까지도 홀로 살고 있다(#3,6,8,9,12). 그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후생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중에 있다(#2,8,9,12).

[4] 건강

그 여성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1,2,3,4,6,7,8,9,12), 이 조사에 응한 13명의 여성 가운데 9명이 불임인 것이다(이 9인중, 8인은 결혼 경험이 있거나, 가족관계도 오래 유지했으며, 나머지 1인은 매우 젊었다). 현재 이 여성들은 호흡곤란, 위장장애, 심장이상, 허파이상과 같은 고질병을 겪고 있다.

[5] 대만 귀환소감

이 여성들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안부”로서 받은 깊은 충격을 지니고 있다.

(1) 부끄러움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발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과 친지들과의 접촉도 거의 있지 않다(#4,6,8,9,10,11,13). 이들 중 한 명은 귀환 후 수 차례 자살을 생각했다(#8). 단 한 명만이 과거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양녀는 망신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7).

(2) 비통함

그들은 젊은 여성으로서 누구에게나 상처입히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자기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1,6,7,8,9).

(3) 분노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잡자코 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6,7).

8. 그들의 기대와 희망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물질적 보상을 희망하고 있다(#2,3,5,6,7,8,9,11,12,13). 그러나, 보상을 바라고 있다 해도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일본정부가 한국의 “위안부”에게 보상한다면, 대만의 여성들 또한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위안부”들과 똑같이 치우되기를 바라고 있다(#5,7,9,11).

이 여성들 중 몇명은 반드시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건강상태가 곤란해지면 특별히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2,6,8,9,12). 그들이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이유는 우선은 건강 때문이거나(#2,6,8,9), 유족을 돕기위해, 혹은 현재의 궁핍한 생활 때문이다. 그들의 노후를 위해 보상은 꼭 필요하다(#4,13).

두 명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도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로써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을 것이다(#6,7).

9. 결론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대만 출신의 여성들이 성 제공을 강요받았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대만의 “위안부”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왜 일본인이 대만여성에게 성 제공을 강요했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힘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상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외면을 중지하고, 대만정부 또한 이 여성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 과거 “위안부”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그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욕성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받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라건대, 이 조사가 훗날 한 층 풍부하고 상세한 분석을 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주 기 >

과거 위안부들은, 현재 73세 전후의 연령이 되었고, 5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감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취

특 정보의 일부는 다소 부정확하거나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분석은 다른 자료보다, 오히려 그들 개인의 회고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인의 관점에서 위안부들의 과거 경험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위안부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피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의 위안부 다수는 이미 사망했다. 그러므로, 이 13명과의 회견이 불충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분석이 핵심적인 문제와 양상들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기대한다.

이 문건의 독자들이 위안부의 보상과 존엄성 회복을 도울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문건은 위안부들의 진실된 진술에 의거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 재위계 수정 혹은 보완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TWRF. 데이-링 첸
1992. 6. 30



(오른쪽부터 메이링 첸, 로자리오 파딜라, 솜키드 마이사, 넬리아 산초)

[타이 보고]

타이-버마 철로의 노역 근로대와 위안부

SOMKID MAHISSYA

아시아 역사상, 태국은 식민종속의 경험이 없는 나라였으며, 인도지나 반도의 중앙에 자리해 교차 길목이 되어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아시아 나라 국민의 지배와 정복에 태국을 이용하여 왔는데, 처음엔 프랑스, 다음엔 미국이 인도지나인들의 핍박에 태국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군은 버마를 침략, 정복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태국을 침입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파괴가 자행되었고, 인도지나 반도는 축발이 되어버렸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태국인들은 단지 제국주의 세력과 지방의 지배 계급의 음모에 희생된 불모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의 많은 일본인은 타이-버마 철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서구인은 그 철로에 대해 조금 알지도 모르겠으나, 오로지 "콰이강의 다리"라는 미국 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1942년 3월 8일, 버마의 탱구운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자, 버마 주둔 일본 군 기지는 무기와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그 죽음의 철로를 건설하고 1943년 8월 안으로 가능한 빨리 완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일본인은 철로 건설 계획의 실현을 위해 약 6만의 전쟁 포로와 다수 아시아 근로자를 동원하였다. 당시 대략 12000 가량의 전쟁포로(POW)가 사망하였다. 그들은 길 없는 정글을 따라, 의료 대책도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원시적 연강들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영양 실조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이 뼈 빠지게 일했다.

1943년 5월, 캠프에서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이 그 철로를 따라 퍼져 나갔는데, 심지어 콜레라 발생 뒤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강행되었다. 매일 수백명씩 죽어나갔고, 경복을 비는 기도도, 굶도 없는 거대한 공동 묘지에 버려졌다. 훗날 이 무덤들은 사라졌으며 잊혀졌다. 오늘날에도 수백명의 아시아 노동자들이 묻혀 있든지 버려졌든지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케나큐리(Kanhanakuri)와 버마의 탕비우차야(Thanbyuzayat)를 잇는, 415 킬로미터의 죽음의 다리는 1943년 10월 28일 완공되었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아시아 근로자들이 그 철로작업에 동원되었는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자료에는 33만의 동원과 그 중 8만의 사망이 추정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고, 어떤 근로자들은 가족을 데리고 갔으며, 따라서 여성과 어린 아이도 다수 있었다.

<여성과 철로>

타이-버마 철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건설 작업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간과해왔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버마와 태국의 위안소에는 '위안여성'이 엄연히 있었다. 1942년 7월 방퐁(Bangpong)에서 착공에 들어가자 곧 위안소가 개시되었고 그 뒤 칸카다쿠리(Kanchanakuri)에는 더 많이 들어섰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군의 위안소 관련을 부인했다.

실제로, 위안소는 군인들의 주둔지에 타이-버마 철도를 따라 주옥 설치되었다. 철로 완공 후, 군인들은 일본여성, 한국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위안소를 그 길을 따라 짓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그 운영도 담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징수하려 했고, 징수금은 계산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일본군은 한국에서 총당되어 보내진 여성과도 관계했다. 아마도 일본 전체 군인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위안부'의 총인원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 그들은 아시아의 전쟁 일선에 배치되었고, 20만을 헤아리는 젊은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을 위해 성 재공을 강요당했다. 그들은 강제 연행, 납치, 돈벌이 거 짓약속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된 후, 여러 곳의 전쟁 일선에 배치되었다.

* 일본 패전 당시, 이 여성들은 이국 땅에 버려진 채 휴지조각이 되버린 일본군의 돈을 지불받았다. 그들 중 다수가 이국 땅에서 죽었으며, 나머지 다른 여성들은 누구도 귀향하지 못했다.

.....

희생자는 누구인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아시아의 근로자들, 전쟁 포로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타이-버마 철로에 희생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에 대한 사죄는 커녕 만행의 전모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않다. 일본군인과 민병 및 그 유족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 노역 근로대와 전쟁포로, 중군위안부는 그들이 참아낸 고통에 대해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

날로 증가하는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요즈음 아시아의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매춘을 위해 국내외로 매매되거나 노예 노동자가 되고 있다. PG라는 이름의 한 단체는 태국내에 백만의 여성이, 그리고 그 중 16세 이하의 여성 80만이 매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여성 근로자들이 강간당하고 착취받고 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사냥되다시피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성 관광이 조직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2차 대전 중에는, 그 중 80%가 한국 여성인 아시아의 위안부들이 성 재공을 강요받았으며 천재까지 수치심과 소리 없는 분노에 떨며 고통받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이들 여성 가운데 몇 명이 그들의 처절한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윤리주의자들은 '매춘'을 '필요악'으로 여기려 한다. 만일 이 여성들이 사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더라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춘 행위가 구속 혹은 징벌될 일이 아닐 경우 나라가 온통 그들로 넘치로 또 어디에나 성병이 만연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매춘문제가 여성들의 독자적 문제는 아니므로 이러한 태도는 다시 문제를 낳을 뿐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이며, 빈곤과 함께 성욕을 위해 여성을 원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남성의 태도에서 야기된 문제인 것이다. 매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남성이 구속되거나, 비난 받거나, 수사되고 연구되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육체를 살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 매춘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PKO(UN의 평화 유지 활동)법률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든 혹은 아니든 간에,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거의 어디에서나,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한 지위는 한 사회와 문화가 취하는 태도에 의해 허락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는 하나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동등하게 지니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태도와 가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관철시킬 수 있는가?」

- Somkid Mahissaya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 의 문

1992년 8월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에서 참가한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여성의 성적 노예화와 인간 존엄성 말살의 심각성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인 국가권력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강제연행, 운간, 고문, 학살 등 전대미문의 잔학한 범죄이다. 이것은 가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쟁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7월6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사죄에 그치고 과거 스스로 저지른 죄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채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PKO 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은 데 대해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 처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민간 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회의에 모인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6개국 대표들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를 결성했다. 이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전쟁때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종군위안부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2.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보상, 역사교과서 시정 등 일본의 책임있는 전후처리를 촉구한다.
3. 우리는 유연을 위시하여 세계 인권 기구들에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4. 우리는 금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아시아 연대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아시아 여성의 인권신장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의 참석자들은 일본정부가 참회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도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1. 일본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일본 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문제”의 전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쟁에 의해 발생한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아시아 여성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희생자들과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에게 완전하고도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죄를 하여야 한다.
4. 일본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여 “강제종군위안부”라는 이름하에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연행, 매춘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일본학교 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쳐야 한다.

1992년 8 월 11일
“정신대 문제 아시아연대” 회의 참가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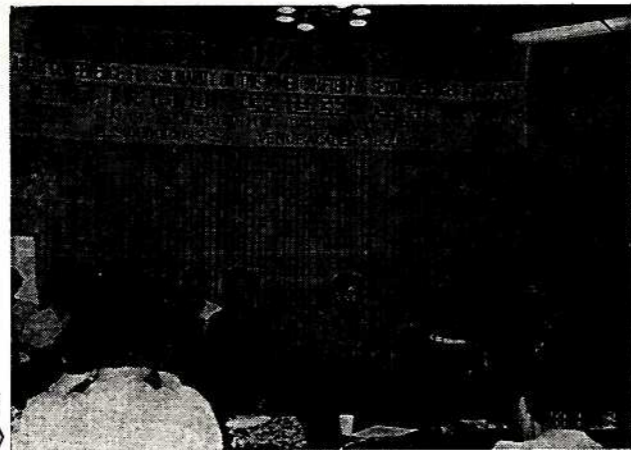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자 전체가 함께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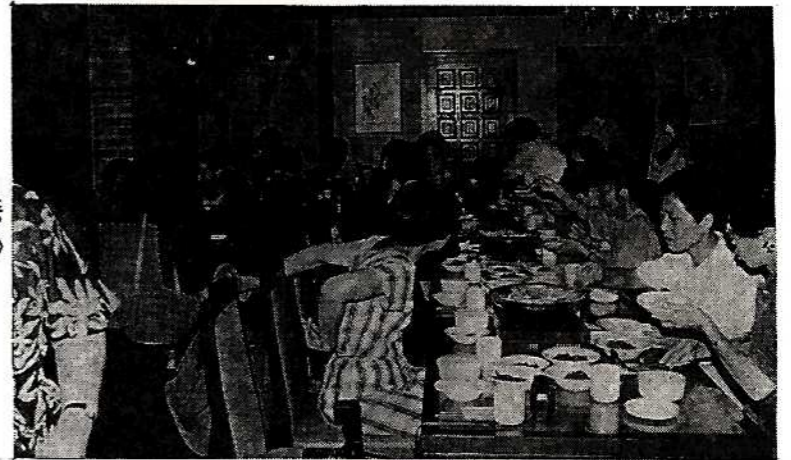
〈8월 9일 각국 정신대 대책 활동에 대한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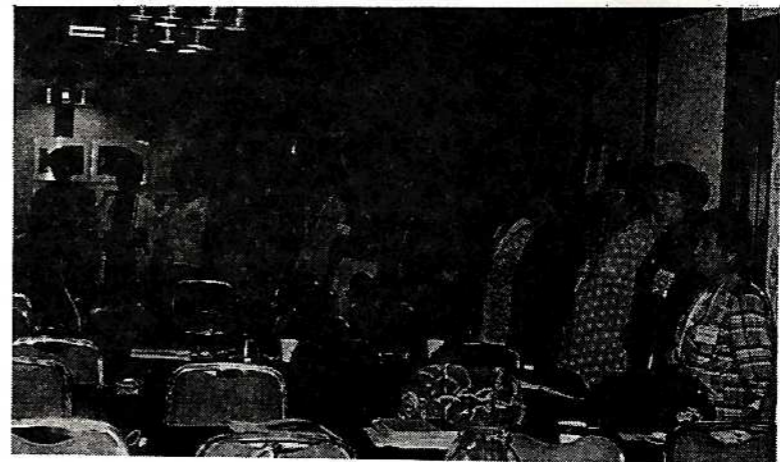
〈할머니들도 참여하여 정신대문제 해결을 강조하셨다〉



〈증언하는 시간, 홍콩에서 참가한 Somkid가 노청자 할머니께 질문하고 있다〉



〈맛있는 점심식사 중입니다.〉



〈8월 10일 밤 10시 40분 함께 손을 잡고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명단

NELLIA SANCHO-LIAO	ASIAN WOMEN HUMEN RIGHTS-PHILPPINES	032-999-437
	1932 UP BLISS, dILIMAN,	032-922-02-17
	QUEZON CITY	
ROSARIO T. PADILLA	GABRIELA	63-2-99-8034
	P.O.BOX 4386, MANILA 2800	63-2-922-95-67
	PHILIPPINES	
YICHEN CHEN	TAIPEI WOMEN RESCUE FOUNDATION	
	4F. NO. 1 LANE PO-AI ROAD	
	TAIPEI, TAIWAN	
MEILING CHEN	" "	
GOVIND KELKAR	GENDER AND DEVELOPMENT SYUDIES UNIT	662-524-5673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662-516-2126(F)
	GPO BOX 2754, BANGKOK 10501 THAILAND.	
SOMKID MAHISAYA	ASIAN MIGRANT CENTRE	312-0031
	4 JORDAN RD., KOWLOON	367-7355(F)
	HONGKONG	
SUMIKO SHIMIZU	35, Sangiinkaikan, Nagatacho,	
	Chiyodacho, Chiyoda-Ku, Tokyo, JAPAN	
	日本 埼玉縣 大官市 東大成町 1-624-1	
	ベルデ大官 A-301	
KUMIKO TAKAHASHI	Japan Women's Council	
	東京都 清瀬市 中清戸 4-944-4	
SACHIKO KAKIIBUCHI	2-11-14, Gojonisi, Narasi,	
	Nagatacho, Chiyodacho, Chiyoda-Ku,	
	Tokyo, JAPAN	

SAYAKA IRIE	Matsushiro, Korean Comfort Women	03-3709-0650
	problem assocition	
	Tamagawa 2-11-10, Tamagawa Flat 201,	
	Setagoya-ku, Tokyo 158	
KIYOKO YAMANAKA	Oteme-No-Cho	
	Higashi-Kv. Osaka, Japan	
ATUKO SHIBAZAKI	1-1-10. Nakakawaramachi, Sakaisi,	0722-23-6954
	Dsaka, JAPAN	
YUNKO SUZUKI	東京都 墨田區 立花 2-27-6	
YOUKO SIBA	東京都 豊島區 東池袋 2-34-11-401	
AIKO KARTER		
KIKUE TAKAHASHI	Japan Women' Temperance Union	03-3361-0934
	Hgahanin-ch 2-23-5, Shinjuku-ku	03-3361-1160(f)
	Tokyo 169, Japan	
AKIKO SUZUKI	Tokyo TWCA 1-3, Surugadai Chiyodako,	
	Tokyo, Japan	
MISAKA TAMAGAWA	1-36, Kanada Sinhocho, Tiyodaku,	03-329-0581
	Tokyo, Japan	
SUZUYO TAKASATO	405, 3-29-41, Kumoji, Jaha,	098-869-3621
	Okinawa, Japan	
MACHIKO MORIKAWA		
SATOKO KONO	1-23-18 Kujike, Abikoshi,	0471-83-0832
	Chiba-Ken 270-11, Japan	
HARUKO SCHIBAZAKI	4-49-4 Ikebukuro Honcho Toshimaku,	03-3971-8959
	Tokyo, Japan	
KIKUTO YAMAGUCHI	4-14-12 Ikebukuro, Toshima-Ku,	03-3982-2616
	Tokyo, JAPAN	
MASAKO TACH	Yoyogi 2-21-11, Shibuya-Ku Tokyo	08-3370-2727

YAMASIDA AKIKO	74-9-502 Kitayama, Muko-Shi, Kyoto 617, Japan	931-6355
KAYA TABATA	Sudaemun-Gu, Yunhee-1-Dong 413-135, #303, Seoul, Korea	02-338-0433
MASAJI TACG	4-2-16 Takiyama Higashikurume, Tokyo, Japan	0424-71-3466
MASAKO YAMANE	Tokyo Sinjukuku Ichigaya Daimaci 17-4, Japan	
YAYORI MAISUI	Daizawa 3-9-5-203, Setagaya-Ku, Tokyo 155 Japan	813-3412-2775 813-3412-2765
SUMIKO KOBAYASHI	155 東京都 世田谷區 代澤 3-9-5-203 1-37-9-704, Kakigara Cho Nohonbashi Chuoku, Tokyo 103, Japan	
NAGANUMA SETSUO	3-1-23-306 Sugesengoku, Tamaku, Kawasaki, 214 Japan	
MIZIKO MORIKAWA		
SACHIKO KAKIBUCHI		
KIYOKO YAMANAKA		
SAKADA NABUCO		
YUKO OKITA		
PARK YUNNAM	埼玉縣 北葛飾郡 庄和町 米島 784-7	0487-46-0807
SIN MIN ZA	東京都 墨田區 堤通 2-5-5-701	03-3610-2045
SUN JA KOO	大阪府 藤時市 春白丘 公園 9-109	0729-55-5850
MIJIN JA PARK	大阪市 福島區 大開 4-3-2-305	06-461-5325
PARK MIJWAJA	大阪市 東住吉區 駒川 3-16-6-401	06-627-3558
PARK CHONGJA	3-13-4 Nakno Nakano-Ku Tokyo 164, Japan	03-3382-2525
MITOSHI NORIKO	172 Yoyasu, Kumamoto-City, Japan	

CHANGHWA CHOI	1-6-7, Shiragane, Kokurakita-Ku, Kitakyushu, JAPAN	
CHONGJA PARK	日本 北九州市 小倉北區 白銀 1-6-7 164 東京都 中野區 中野 3-13-4	03-3382-2525
MIRIAM COUSINS	在日大韓基督教 東京教會 3-13-4 Nakano Nakano-Ku Tokyo 164, Japan	
고혜정	Korea Seoul City Sungbuk-Ku Dongsun-Dong 2-Ka 1-1	02-923-5319 02-923-9302
공덕귀	Seoul City Suhdaemun-Ku Pukgaja 1-Dong Hanyang Apt. 1-105	02-306-3552
김영	Seoul City Chongro-Ku, Ahnguk-Dong, 8-1, Korea	02-732-7656
김경희	Seoul City Chongro-Ku Kuki-Dong 134-1 Hyundae Villa 3-205, Korea	02-384-5908
김명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5층	02-708-4034
김성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미성아파트 8동 907호	02-354-7495
김순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 105 미성아파트 6동 108호	02-303-0003
김신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4-210	02-386-7853
김영애	경기도 광명시 철산 1동 주공 아파트 1315동 503	02-613-0222
김혜원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1-5	02-711-2061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80-12	02-352-4239

박 현 순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천동 로얄맨션 901동	02-796-4533
나 선 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4-18	02-561-1038
남 명 희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147-40	02-454-1010
박 소 영	ACISCA, Seoul City, Dongzak-ku, 서울시 동작구 대림아파트 7동 1506호	02-535-1933
박 순 금	경기도 구성면 동백리 75-106	0331-282-0529
손 선 애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	02-739-2529
안 상 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92	02-738-5340
안 언 옥	Weiher Str.17, 463 Bochum, Germany	0234-336538
오 종 예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 KBS 우성 아파트 103-1501	02-684-1624
우 순 덕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25-105 3동 5반,	02-816-4911
유 춘 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연합회관 11층	02-782-0676
윤 영 애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83-35 7/3	
윤 정 옥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13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02-393-1215
이 문 숙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4호	02-763-8728 02-763-9738
이 미 경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02-763-9633
이 성 혜	두레방	0351-64-3696

	경기도 등두천동 417-1	
이 선 애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34-5	02-258-8283 02-283-2833
이 우 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803-103 우성아파트 803동 103호	02-571-2531
이 문 자	여성의 전화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층	02-334-4344
이 효 제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02-763-9633
정 숙 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맨션 17-302호 여성교회	02-543-7050
정 진 성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사회학과	02-403-8373
정 대 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842호	02-788-2762
조 성 숙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14-7	02-710-7111(271) 02-914-5314
한 우 섭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주공시범아파트 16동 5호	02-334-4344 02-693-0550
혜 조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2동 관음사	02-968-3752
한 국 엽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56 1111 호	02-708-4246
윤 미 향	서울시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02-763-9633 02-895-5589

신 미 숙	서울시 중구 정동 1-23 여성단체연합	02-738-2883
이 지 영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층	02-708-4181
김 후 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층	02-708-4326